

조선 사신의 對明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 - 濰縣城 노정에 대한 인문지리적 고찰*

王珂** · 한종진*** · 당윤희****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현재 昌邑市 都昌街道 구간의 사행 노정
3. 현재 濰坊市 寒亭區 구간의 사행 노정
4. 현재 濰坊市 奎文區 구간의 사행 노정
5.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조선과 중국의 외교 사신들은 기본적으로 육지를 경유하여 국경을 횡단하는 “陸路使行”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바다를 횡단하는 “海路使行” 역시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여러 왕조와 교류하는 중요한 사행길이 되었다. 1621년 3월, 後金이 심양과 요양을 탈취하고 요동 반도 전역을 차지하여 육로가 차단되자, 明나라로 향하는 조선 사신들은 배를 타고 바닷길을 이용하게 되었다. 조선의 海路使行, 즉 조선사신이 바다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향하였던 사행은 1621년부터 1636년까지(明末 天啓, 崇禎 年間) 15년간 유지되었다.¹⁾

*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ed Program for Korean Studies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Republic of Korea and Korean Studies Promotion Service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KS-2020-INC-2250002).

** 제1저자, 중국 濰坊學院 韓語系 講師(wgc5858@naver.com)

*** 공동저자, 중국 濰坊學院 韓語系 副教授(hans@snu.ac.kr)

**** 교신저자, 건국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dyh4335@konkuk.ac.kr)

- DOI: <https://doi.org/10.21192/scil.106..202102.008>

1) 관련 내용은 선행 연구인 줄지,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一)>(《외국학연구》 43집, 2018),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登州府 黃山館驛 - 萊州府 朱橋驛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중국학논총》 63집, 2019),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萊州府 朱橋驛 - 萊州府城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2) — 二十里鋪에서 萊州府城까지>(《중국산문집간》 9집, 2019) 등 참고.

이 시기에 해상사행로를 이용하여 명나라로 사행길에 올랐던 조선사신들이 남긴 연행록 중에서, 사행 여정의 역참로와 지명이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된 연행록 문헌으로는 1621년 조선의 辯誣謝恩兼冬至聖節使의 書狀官이었던 安璈의 《駕海朝天錄》, 1622년 登極使 吳允謙의 《秋灘東槎朝天日錄》, 1623년 奏請使의 부사 尹暄의 《白沙公航海路程日記》, 서장관 李民宥의 《癸亥朝天錄》, 1623년 7월, 冬至聖節兼謝恩使의 정사 趙澂의 《燕行錄》, 1624년 謝恩兼奏請使의 정사인 李德沔의 《朝天錄(一云航海錄)》, 서장관 洪翼漢의 《花浦朝天航海錄》, 1624년 冬至使의 서장관이었던 金德承의 《天槎大觀》, 1625년 聖節使였던 全湜의 《沙西航海朝天日錄》, 1626년 謝恩兼進賀使의 정사인 金尙憲의 《朝天錄》,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申悅道の 《朝天時間見事件啓》, 그리고 1630년 鄭斗源이 기록한 《朝天記地圖》 등을 꼽을 수 있다.²⁾

본고는 명청교체기 조선의 對明海路使行에 이용되었던 登州 路線과 覺華島 路線의 두 가지 경로 가운데 登州 路線을 대상으로 그 노선과 지명을 재구하고 인문지리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1621년부터 1636년까지 山東 登州-萊州 지역을 경유하여 북경으로 왕래했던 조선사신들의 연행록 문헌을 조사하였고 그 중에 나오는 중요한 경유지들의 지명을 추출하였다. 또한 각 경유지별로 각종 지리지, 지방지 등을 고찰하고 현장 답사를 진행하여 각 지역의 사진자료를 촬영하는 한편, 현지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에 전해지는 사행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현지 조사를 병행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山東 登州府 구간의 조선사신들의 사행 경유지와 현재의 지명 및 위치를 재구하였고, 이어서 萊州府로 진입하여 掖縣, 昌邑縣을 경유하는 노정을 살펴보았다. 본고는 선행 연구를 이어 해당 사신들이 거쳐간 사행 경유지 가운데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부터 濰縣城에 이르는 구간을 추출하여 노정에 따라 정리하였다. 이 작업을 통해 萊州府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 구간의 해로사행의 대체적인 경유노선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자료를 바탕으로 萊州府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의 구간에서 조선사신들이 사행록에 기록한 주요 경유지를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이 新營堡, 王祿店(王奴店), 渤海襟喉, 四十里舖, 營丘舊封, 王彥方故里, 寒亭(漢亭店/寒亭古驛亭/寒亭古驛), 古亭寒水, 濰縣二十里舖, 平仲古里, 十里舖, 孔文學舊治, 濰河(囊沙上流處), 漁河橋, 濰河橋, 白浪河, 白浪橋, 北通渤海 南遡穆陵欄門, 東渡河, 濰縣 등의 지명이 출현한다.

연구진은 조선사신이 경유한 명대 말기의 지명에 대해 문헌고증과 현장답사, 현지 전문가와 현지인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대 말기의 지명에 대응하는 현대 지명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명대의 지명은 현재의 昌邑市 都昌街道, 濰坊市 寒亭區, 濰坊市 奎文區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래에서 사행록에 나온 지명을 고찰하고 또한 중국 지방지 문헌의 고증, 그리고 현지 조사 등을 통해 명대의 지명을 현대의 지명

2) 관련 내용은 선행 연구인 줄지, 〈朝鮮使臣海路使行路線中山東登州之地名考證與重構(一)〉(《외국학연구》 43집, 2018), 〈조선사신의 海路使行路線 중 山東 登州府 黃山館驛 - 萊州府 朱橋驛 노정의 인문 지리적 고찰〉(《중국학논총》 63집, 2019) 참고

과 대조하여 고증한 결과를 현대의 지명에 따라 대략 세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2. 현재 昌邑市 都昌街道 구간의 사행 노정

鄭斗源은 《朝天記地圖》〈昌邑縣〉에서 “昌邑縣에서 서쪽으로 濰水縣까지 80里 여정이다.”라고 기록했는데, 여기서 “濰水縣”은 바로 濰縣이다. 중국 방지의 기록³⁾과 종합해보면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 急遞鋪⁴⁾와里程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昌邑縣城에서 남쪽으로 10리에 昌邑縣 北逢鋪(북방포)가 있고 서남 방향으로 20리를 가면 昌邑縣 王耨鋪(왕누포)에 도착하고 30리를 가면 濰縣 王白鋪에, 40리를 가면 濰縣 牛埠鋪에, 50리를 가면 濰縣 寒亭鋪에, 60리를 가면 濰縣 朱毛鋪에, 70리를 가면 濰縣 趙疇鋪(조탄포)에, 80리를 가면 濰縣城에 도착한다.

昌邑縣城, 즉 현재의 昌邑市 소재지로부터 濰縣城, 즉 현재의 濰坊市 소재지까지의 거리는 대략 80리 정도 되었으며, 중간에 10리 단위로 급체포 혹은 역참을 두어서 물품의 운송과 행정 문서의 배달 등을 돕도록 하였다. 조선사신들은 북경으로 향하거나 귀국하는 길의 긴 사행노정 중에 10리 단위의 급체포와 역참을 이용하여 휴식하거나 혹은 이정표로 삼아 사행길을 재촉하였다.

아래는 조선사신들이 이동한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의 대명사행노정 중에서 현재의 昌邑市 都昌街道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행 기록들을 살펴본 것이다.

(1) 安璫 《駕海朝天錄》1621년 북경행:(7월)8일 맑음. (牛庄村에서) 다시 濰河를 건넜다. (昌邑縣을 지나 서쪽으로 7리를 오니 新營堡가 있다. ……저녁에 濰縣城 北隅에 도착하여 王씨 姓을 가진 민가에 묵었다. 이날은 110여 리를 움직였다. ((七月)初八日, 晴。(從牛庄村)再渡濰河, 過(昌邑)縣西七里, 有新營堡, ……暮, 入濰縣城北隅, 宿王姓人家。是日, 行共百十餘里。)

(2) 安璫 《駕海朝天錄》1621년 귀국행: 10월 1일 戊辰일 맑음. 아침에 (昌樂縣城에서 출발했다) 40리를 가서 濰縣 北館里에 도착하여 말을 쉬게 했다. ……저녁에 王奴店에 도착하여 孫씨 성을 가진 민가에 묵었다. 이날은 90리를 이동했다. (歸程: 十月初一日, 戊辰, 晴。早發

3) 昌邑縣: 北逢鋪는 縣에서 南으로 10里 떨어진 곳에 있고, 王耨鋪는 縣에서 西南으로 20里 떨어진 곳에 있다. (昌邑縣: 北逢鋪在縣南十里, 王耨鋪在縣西南二十里. 《(康熙)昌邑縣志》卷之三《公署》, 清 康熙 十一年(1672)刊本) 濰縣: 趙疇鋪는 縣에서 東北으로 10里 떨어진 곳에, 朱毛鋪는 縣에서 東北으로 20里 떨어진 곳에, 寒亭鋪는 縣에서 東北으로 30里 떨어진 곳에, 牛埠鋪는 縣에서 東北으로 40里 떨어진 곳에, 王白鋪는 縣에서 東北으로 50里 떨어진 곳에 있다. (濰縣: 趙疇鋪去縣東北一十里, 朱毛鋪去縣東北二十里, 寒亭鋪去縣東北三十里, 牛埠鋪去縣東北四十里, 王白鋪去縣東北五十里. 《(康熙)濰縣志》卷三《橋樑總鋪》, 清 康熙 十一年刊本)

4) 急遞鋪는 宋代부터 설치된 우편배송 조직으로서 역참의 기능을 겸하였다.

(昌樂縣城), 行四十里, 到濰縣北館里息馬, ……暮, 投王奴店, 宿孫姓家。是日, 行九十里。)

(3) 尹暄《白沙公航海路程日記》1624년 귀국행 : (3월)16일 맑음. 아침에 昌樂縣城 東門을 나서서 저녁에 昌邑縣 경계에 있는 王祿店에 도착하여 表씨 姓을 가진 민가에 묵었다. (歸程 : (三月)十六日, 晴。朝, 出昌樂東門, 到昌邑境王祿店表姓人家宿。)

(4) 李民宥《癸亥朝天錄》1624년 귀국행 : (3월)16일 庚午일 王老店에 도착했다. 아침에 昌樂縣을 출발하여……저녁에 王老店(昌邑縣 관할)에 도착했는데 이날 약 110리를 이동했다. (歸程 : (三月)十六日庚午。到王老店。早發昌樂。……抵王老店(昌邑地), 約行一百一十里。)

(1)과 (2)의 사행 기록은 1621년 사신단의 正使였던 安璫이 각각 북경행과 귀국행의 노정 중에서 창읍현으로부터 유현까지 이동하며 경유하였던 지역과 이동거리를 적은 것이다. (3)과 (4)의 사행 기록은 각각 1623년 奏請使의 부사와 서장관이었던 尹暄과 李民宥이 임무를 마치고 1624년 귀국길에 올라 창읍현으로부터 유현까지 경유하였던 지역과 이동거리를 적은 것이다. 조선사신들의 기록에 등장하는 新營堡, 王祿店, 王奴店, 王老店 등의 지명을 아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1 新營堡

윗글 (1)에서 1621년 사신단의 正使였던 安璫은 昌邑縣城을 지나 昌邑縣 北逢鋪에 도착하기 전에 “新營堡”라는 지역을 경유했음을 밝히고 있다. 安璫 일행은 牛庄村을 출발하여 서쪽으로 濰河를 건너 후, 昌邑縣에서 서쪽으로 7리 떨어진 新營堡를 지나서 총 100여 리를 이동한 후 濰縣에 도착했다. 중국 지방지 《(昌邑)辛置志》에 따르면 安璫이 기록한 新營堡에 부합하는 곳은 辛置村이다. 辛置村은 일찍이 新營이라고 불렸으며 昌邑縣城의 북쪽으로 濰水의 물굽이가 돌아닿는 驛道 곁에 있는 마을이었다. 辛置村은 지금 昌邑市 都昌街道 辛置1村, 辛置2村, 辛置3村으로 나뉘어졌다.⁵⁾

또 조선 사신들이 기록으로 남기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昌邑縣城에서 출발하여 남으로 10리를 가서 먼저 北逢鋪(북방포)라는 急遞鋪를 거쳐갔을 것이다. 北逢鋪은 일찍이 逢公里라고도 불렸다. 逢公里는 漢逢萌故里(한방맹고리)를 일컫는 것으로 縣의 서남쪽으로 10리 떨어진

5) 辛置에서 출토된 墓碑에 따르면, 明 成化 五年(1469)부터 “新置”, “辛營”, “新營”등 3개의 명칭이 혼용되었는데 모두 辛置村을 가리킨다. 淸初에 차츰 “新置”로 통일되었다. 民國 十七年(1928)에 “新置”가 “辛置”로 이름이 바뀌었다. 淸 宣統 二年(1910) 新置村을 설치하여 昌邑縣 城區에 속하게 되었다. 民國 十七年(1928)에 辛置村으로 이름이 바뀌어 昌邑縣 第一區에 속하게 되었다. 1945年 昌邑縣 城區에, 1950年 昌邑縣 第一區에, 1956年 城關區에, 1958年 紅旗人民公社에, 1985年 都昌鎮에, 1997年 奎聚街道에 속했고 현재는 昌邑市 都昌街道에 속한다. (昌邑市《辛置誌》編纂委員會, 《辛置志》, 1998, pp.51-52.)

곳에 있는데 清代 南逢村, 北逢村이 모두 이곳을 가리킨다.⁶⁾ 근대 이후 경제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 이곳은 南逢村, 王家北逢村, 劉家北逢村, 高家北逢村, 徐家北逢村 등 5개 마을로 확장되었고 지금은 昌邑市 都昌街道에 속한다.

2.2 王祿店(王奴店/王耨鋪)

윗글의 (2), (3), (4)에서 조선사신 安璫, 尹暄, 李民寔은 각각 귀국여정에서 昌邑縣 서남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인 王奴店, 王祿店, 王老店을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尹暄과 李民寔은 동일한 사신단이었는데, (2)과 (3)의 글을 보면 3월 16일 저녁에 묵었던 숙소를 각각 王祿店과 王老店으로 다르게 표기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사신이 각각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王奴店, 王祿店, 王老店은 실상 모두 王耨鋪(왕누포)를 가리킨다. “奴”, “祿”, “老”는 모두 “耨(누)”라는 글자의 발음과 유사한 다른 글자를 빌려 적은 것이다.

王耨鋪는 곧 지금의 王耨村으로 북쪽으로 G206국도가 지나고 서쪽으로 夾溝河를 끼고 있다. 1975년 白楊埠에서 출토된 刀幣에 새겨진 내용에 따르면 이 마을은 漢나라때 세워졌고 교통의 요지로서 靑州와 萊州를 잇는 官道가 마을 가운데를 지났다. 元 至正 3년(1343) 王耨鋪를 설치했고 淸 乾隆 7년(1742)에 폐지되었다. 역대로 區, 鄉, 鎮, 公社의 治所가 있었다.⁷⁾ 王耨村은 지금의 昌邑市 都昌街道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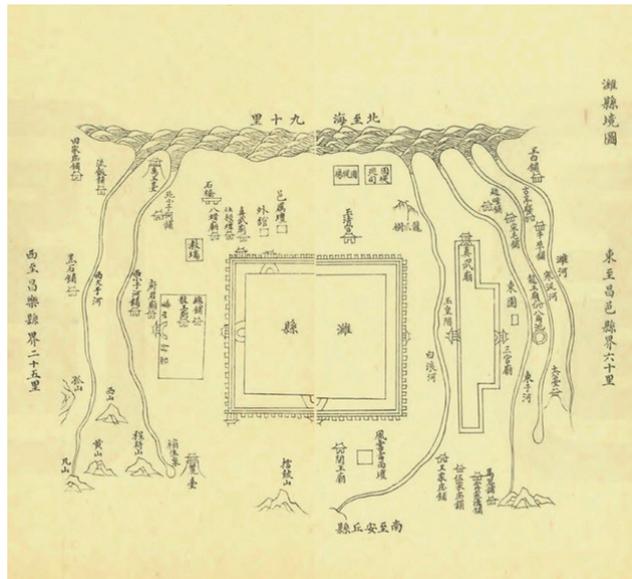
〈그림 1〉 지금의 G206國道 변에 세워져 있는 昌邑市와 濰坊市 寒亭區의 경계표지

6) “逢公里, 漢逢萌故里在縣西南十里, 今有村曰: 南逢、北逢者是也。”(淸)周來邵 等 纂修, 《昌邑縣志》卷之一 《古蹟》, 淸 乾隆 七年(1742) 刊本版.

7) 昌邑縣 地名志編纂委員會 編, 《昌邑縣地名志》, 1987, p.220.

3. 현재 濰坊市 寒亭區 구간의 사행 노정

사행 기록에 따르면 조선사신들은 王耨村을 지나 서쪽으로 가서 바로 昌邑縣과 濰縣의 경계를 넘어 濰縣⁸⁾ 경내로 들어섰다. 濰縣은 萊州에서 서쪽으로 180리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 昌邑縣 경계까지 60리, 서쪽으로 昌樂縣 경계까지 25리, 남쪽으로 安丘縣 경계까지 60리, 북쪽으로 바다까지 90리 떨어져 있었다.⁹⁾



〈그림 2〉 《(萬曆)萊州府志》〈濰縣境圖〉

8) 濰縣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濰縣은 漢나라 때 北海郡으로 平壽縣과 膠東國 下密縣 두 縣이 있던 땅이다. 東漢때 膠東國을 北海國으로 병합하면서 二縣은 모두 북해국에 속하게 되었다. 晉나라 때 濟南郡에 귀속되었다가 南北朝時期 劉宋 때 다시 北海郡에 귀속되었다. 南北朝 元魏 때 郡治를 이전하여 平壽縣, 下密縣의 관할에 속했고, 後齊 때 高陽郡으로 개칭했으며 여전히 平壽縣의 관할이었다. 隋나라 開皇 6년에 魏나라 膠東 故城에 濰水縣을 설치했고 16년에 下密縣에 濰州를 설치했다. 大業 初에 州를 폐지하고 下密縣를 北海縣으로, 濰水縣를 下密縣로 개칭했으며 모두 北海郡에 속하게 되었다. 唐 武德 2年 北海縣, 營丘縣, 下密縣을 합쳐서 濰州를 설치하고 13개 縣을 설치하였다가 武德 8年 州를 폐지하고 營丘縣과 下密縣을 北海縣에 병합시키고 靑州 北海郡에 배속시켰다. 宋 建隆 3年 北海縣에 北海軍을 설치하고 昌邑縣을 새로 설치하여 예속시켰다. 乾德 3年 北海縣을 濰州로 승격시키고 새로이 昌樂縣을 설치하여 3개 縣(북해, 창읍, 창락)을 관할하게 되었다. 金나라 때는 益都府에 속했으며 여전히 3개 縣을 관할했다. 明 洪武 元年에 北海縣을 濰州에 병합시켰으며 靑州府에 속하게 되었다가 洪武 9年에 州를 격하하여 縣으로 삼고 萊州府에 예속시켰다. 洪武 21年에 膠水縣을 平度州로 승격시키고 濰縣을 平度州에 예속시켰다. 淸나라 때는 명나라의 제도를 따랐다. 民國시기에 膠東道, 萊膠道에 차례로 속했다가 1948年 濰坊特別市를 설치하고 濰縣을 별도로 관할하다가 1958年 濰縣을 철폐하고 濰坊市에 병합시켰다. 1961年 濰縣을 회복시켜 濰坊市와 병립시켰다. 1983年 地級市가 되면서 濰縣은 濰城區로 전환되어 濰坊市의 관할이 되었다. (嘉靖)《山東通志》卷三〈建置沿革下〉明 嘉靖 刻本

9) (萬曆)《萊州府志》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아래는 조선사신들이 이동한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의 대명사행노정 중에서 현재의 濰坊市 寒亭區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행 기록들을 살펴본 것이다.

(1) 趙澱 《燕行錄(一云朝天錄)》1623년 북경행 : 16일 癸酉일, 맑음, 바람이 많이 불었다. 아침에 (昌邑縣城 東舖을 출발하여) 50리를 가서 寒亭店에 도착하여 점심을 해 먹었다. ……이름 모를 다리 하나에 이르러 이를 건너 후 濰縣 北關 客店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來程 : 十六日, 癸酉, 晴, 風亂。朝發(昌邑縣城東舖), 五十里到寒亭店中火。……行至一水橋, 渡至濰縣北關客店宿。)

(2) 李民宥 《癸亥朝天錄》1624년 귀국행: (3월) 16일 庚午일. 이날 王老店에 도착했다. 아침 일찍 昌樂縣에서 출발했다. ……아침밥을 해먹은 후 東渡河를 건너 후에 孔文學舊治(濰縣東十里), 晏平仲故里(濰縣 東 二十里)를 지난 후 寒亭店에서 쉬었다. 다시 王彥方故里, 營丘舊封을 지난 후 王老店(昌邑縣 管轄)에 도착했다. 이날 약 110리를 이동했다. (歸程 : (三月)十六日 庚午。到王老店。早發昌樂。……朝火後, 過東渡河, 過孔文學舊治(濰縣東十里), 晏平仲故里(濰縣東二十里), 憩寒亭店。又過王彥方故里, 營丘舊封, 抵王老店(昌邑地), 約行一百一十里。)

(3) 金德承《天槎大觀》1624년 〈濰縣〉: 현의 경계 동쪽 경계표지에 “渤海襟喉”라고 써져있으며 그 서쪽이 王白店이다. 패방에 “營丘舊封”이라 편액되어 있으니 바로 姜太公이 봉해진 곳이다. ……牛埠店에는 “彥方式化”라는 글이 걸려있으니, 곧 王烈이다. 그는 원래 北海사람으로 漢나라 말기에 遼東으로 피난 갔다. 爭訟이 있는 자들이 왕렬에게 판단을 구하고자 찾아갔다가 중도에 돌아가거나 멀리 그의 집을 보고는 멈추었다고 하니, 지금도 그를 추모하여 표양한다. ……寒亭은 古寒國의 땅으로 泥(착)이 봉해진 곳이다. 한정의 서쪽에는 平仲故里가 있다. 齊나라 재상 晏嬰의 고향이다. (濰縣 : 界東標-渤海襟喉, 其西-王白店, 閭額 : 營丘舊封, 是太公所封處也。……牛埠店揭彥方式化, 乃王烈也。本北海人, 而漢末避地遼東, 有爭訟者將質於烈, 或至途而反, 或望廬而止, 至今追慕而表之。……寒亭, 古寒國泥封此。亭之西, 有平仲故里, 齊相晏嬰也。)

(4)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1624년 북경행 : 18일 己巳일 맑음. 牛阜店에서 점심을 해 먹고 濰縣 北館里에서 유숙했다. 이날은 100리를 이동했다. …… 이날 營丘舊封, 즉 姜太公이 봉해진 곳을 지났는데, 李白의 〈鞠歌行〉에 이르기를 “마침내 營丘의 동쪽에 봉해진 자이다”라고 했다. 晏平仲故里도 있었는데 “여우 갓옷 한 벌을 30년 동안 입은 자”가 아닌가! (來程 : 十八日, 己巳, 晴。中火牛阜店, 宿濰縣北館里。是日, 行一百里。……所過有營丘舊封, 乃姜太公所履, 李白詩所謂 : “遂荒營丘東者”耶。有晏平仲故里, “一狐裘三十年者”耶。)

(5)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1625년 귀국행 : (3월) 10일 戊午일 맑음. 아침에 큰 안개가 낀. (濰縣 北關에서 출발하여)……晏平仲故里, 寒亭古驛, 王彥方式化를 지나 王祿店 王老貞의 집에서 점심을 해 먹고 新河를 건너 후 新河店 富씨 성을 가진 사람의 민가에 유숙했다. (歸

程：(三月)初十日，戊午，晴。朝大霧。(從濰縣北關發行)……歷……晏平仲故里、寒亭古驛、王彥方式化，至王祿店王老貞家中火，渡新河，宿新河店富姓家。)

(6) 全滄《沙西航海朝天日錄》1625년 북경행：(10월) 16일 辛卯일. (昌邑縣에서 출발하여) 정오에 寒亭古驛에 도착했고 저녁에 濰縣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유현성의 서쪽에 한신의 囊沙古蹟이 있었다. 濰水를 건너고 晏平仲故里에 도착했을 때, 絶句를 각 한 수 지었다. (來程：(十月)十六日，辛卯。(從昌邑發行)午到寒亭古驛。夕，至濰縣止宿。城西，有囊沙古蹟。過濰水及晏平仲故里。有詩各一絶。)

(7) 申悅道《朝天時間見事件啓》1628년 북경행：(10월) 11일 戊戌일 맑음. 아침에 昌邑縣에서 출발했다. ……四十里舖를 지나니 (강태공이 봉해졌다는) 營丘舊封, 즉 王彥方故里가 있었다. 정오에 寒亭店에서 쉬었는데 한정이란 寒泥이 봉해진 옛 땅 이름이다. …… 濰縣 二十里舖를 지날 때 晏平仲故里가 있었다. (來程：(十月)十一日，戊戌，晴。早發昌邑，……過四十里舖，有營丘舊封，即王彥方故里。午，憩寒亭店。亭即寒泥所封故名。……歷濰縣二十里舖，有晏平仲故里。)

(8) 鄭斗源《朝天記地圖》1630년 〈昌邑縣圖〉: … (昌邑縣城에서) 30리를 가면 欄門이 있는데 “渤海襟喉”라고 써져 있다. 50리를 가면 欄門이 있는데 “營丘舊封”이라 현액되어 있으니 옛날 姜太公이 봉해진 영지이다. 60리를 가면 欄門이 있는데 “彥方式化”라고 써져 있으니 漢 王彥方이 교화를 베풀던 장소이다.¹⁰⁾ 70리를 가면 欄門이 있는데 “古亭寒水”라고 쓰여 있고 옛 寒나라 泥(착)이 봉해진 영지이다. 75리를 가면 欄門이 있는데 “平仲故里”라 쓰여 있고 齊나라 晏子가 살던 곳이다. (…(自昌邑縣城)行三十里，有欄門，書之曰：“渤海襟喉”。行五十里，有欄門，書之曰：“營丘舊封”，昔姜太公所封之地。行六十里，有欄門，書之曰：“彥方式化”，漢王彥方式化處。行七十里，有欄門，書之曰：“古亭寒水”，古寒泥所封之地。行七十五里，有欄門，書之曰：“平仲故里”，齊晏子所居之地。)

윗글의 조선사신들의 사행 기록에는 동일한 지명이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조선사신들이 일정한 노선을 따라 경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행 기록의 경유지 가운데 현재의 濰坊市 寒亭區 구간에 해당하는 곳은 渤海襟喉, 王白店, 四十里舖, 牛阜店, 營丘舊封, 王彥方故里, 寒亭(漢亭店/寒亭古驛亭/寒亭古驛), 古亭寒水, 濰縣二十里舖, 晏平仲故里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지명들을 현재의 지명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0) 그런데 鄭斗源의 《朝天記地圖》의 “營丘舊封”과 “彥方式化”에 대한 기록은 앞선 사신들의 기록과 좀 차이가 있다. 곧, “營丘舊封”牌坊은 창읍현성 서쪽 50리(濰縣 동쪽 30리)의 寒亭舖에, “彥方式化”牌坊은 창읍현성 서쪽 60리(濰縣 동쪽 20리)의 朱毛舖에 있다고 한 것이다. 정두원은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 전체 거리를 80리로 정확히 기록했으나 “營丘舊封”欄門부터는 어떤 이유에선지 김덕승의 기록 혹은 중국 方志의 기록과 차이가 난다.

3.1 “渤海襟喉”櫺門(王白鋪/王白店)

윗글 (3)과 (8)에서 1624년의 사신 金德承과 1630년의 사신 鄭斗源은 각각 濰縣의 동쪽 경계로 들어오면서 보았던 “渤海襟喉”라는 패문에 대해 기록하였다. (3)과 (8)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 明末 驛道 부근에는 “渤海襟喉(발해금후)”라고 쓰인 櫺門, 즉 牌坊이 있었다. 襟은 옷깃이고 喉는 목구멍의 뜻이므로 요충지를 일컫는 말이다. 즉, 明末 이 곳은 渤海로 향하는 산동 내의 교통 요충지로서 군사 전략상 중요한 곳이었으며, 昌邑縣은 당시 규모가 상당히 크고 경제적으로 융성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金德承과 鄭斗源에 의하면 渤海襟喉 패방의 위치는 昌邑縣城에서 서쪽으로 濰縣을 향해 30리를 간 곳에 있었고 그 서쪽에 바로 王白店이 있었다. 앞서 말한대로, 당시 지방지의 기록에 의하면 昌邑縣城에서 서쪽으로 濰縣을 향해 30리를 가면 濰縣 王白鋪가 나온다. 王白店은 곧 王白鋪이다. 隆慶 2년 劉씨 姓을 가진 사람들이 東芝莊에서 이주해 와 王伯村, 즉 王白鋪를 세웠는데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朱里街道 王伯村이다.

3.2 四十里鋪(牛埠鋪)

王白鋪에서 다시 서쪽으로 10리를 가면 濰縣 牛埠鋪(우부포)가 나오는데 (7)에서 申悅道가 말한 “四十里鋪”와 (4)에서 洪翼漢이 말한 牛阜店이 바로 이곳이다. 牛埠鋪는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牛埠村 지역에 있었다.

牛埠村은 寒亭에서 동쪽으로 3.5km 떨어진 곳으로 G206 국도의 북측에 면해 있으며 전체 면적이 0.16평방km 이다. 元代에 이미 孟(우)씨와 宗씨 姓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었다고 하며 明 洪武 2년(1369) 王씨 姓을 가진 사람들이 直隸 棗強縣(조강현) 柳林莊에서 이주해 와서 정주하기 시작했으며 오늘날 24世 후손들까지 여기에 살고 있다. 전설에 따르면 옛날 어느 날 밤에 황금소가 나타난 적이 있다 하여 牛埠라는 마을명이 붙었다고 한다.

牛埠村 마을주민 王建忠(男, 55)씨와 실명을 밝히지 않은 한 마을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이전에 옛 官道가 牛埠村을 관통하여 동에서 서로 지나고 있었다 한다. 牛埠村의 옛 관도는 오래전 콘크리트 길로 확장 보수되어 이미 옛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림 3〉 牛埠村 안의 옛 驛道 위에 새로이 닦여진 신작로인 東西大街

3.3 “營丘舊封”櫺門(王彥方故里/寒亭/漢亭店/寒亭古驛亭/寒亭古驛)

(2), (3), (4), (7), (8)의 사행 기록은 모두 “營丘舊封”이란 폐방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營丘舊封”이란 營邱城을 가리킨다. 기원 전 1122년에 周 武王은 商나라를 멸하고 스스로 천자임을 자처한 후 자신의 혈족과 공신들을 각 제후국에 봉했다. 당시 姜太公은 武王을 도와 商나라를 멸하는데 공이 컸으므로 齊나라의 제후로 봉해졌고 營丘를 도읍으로 삼았다.

강태공이 봉해진 제나라의 도읍인 營丘城의 위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濰縣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臨淄가 있는데 이곳이 齊나라 제후가 봉해진 장소라고 하나 옳은 설인지 확인할 수 없다”¹¹⁾는 설이고, 다른 하나는 “濰縣에서 남쪽으로 25리 떨어진 곳에 周나라가 太公望을 봉했다고 하는데 그 옛터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 역시 제나라 도읍지 중 하나이다”¹²⁾ 라는 설이다. 그러나 齊나라 太公이 처음 봉해진 도읍지인 營丘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지금까지도 역사가들의 오랜 논쟁거리 중 하나로 남아 있다.¹³⁾

1623년 주청사신단의 서장관 李民歲은 營丘舊封의 폐방이 있는 지역을 지나며 그 옛날 강태공의 유적지를 기념하여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졌던) 營丘 옛 봉지를 지나며>라는 시를 지었다.

昌邑縣城의 서쪽 땅을 감추어진 명당인 隩區(오구)라고 부르니

바로 제나라 옛 도읍 營丘로 강태공이 봉해진 곳이다.

유명한 화가인 李成이 營丘 사람이라 하니 아직까지 거기에 사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 찾아가 江南驟雨圖를 감상해 볼까 하노라.

(李成¹⁴⁾은 유명한 화가로 營丘사람인데 江南驟雨圖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過營丘舊封>

- 11) “(濰)縣南三十里, 臨淄亦有, 皆云齊封處, 未知孰是。”《(萬曆)萊州府志》卷六〈古蹟〉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 12) “在(濰)縣南二十五里。周封太公望于此, 基址尙存, 亦一雄都。”《(康熙)濰縣志》卷五〈古蹟〉, 清 康熙 十一年刊本
- 13) 최근에 山東省 박물관 연구원 王恩田은 <高青 陳莊 西周 遺址와 齊나라 도읍 營丘>라는 논문에서 2009년에 발굴된 山東省 濰博市 高青 陳莊 西周 遺址의 도성 건축의 양식, 출토된 豐簋(풍궤)에 새겨진 銘文의 내용, 兩座一條式 “甲” 字形 墓道를 지닌 大墓가 함께 발견된 점, 城址 내의 天壇와 壇牆(단장)의 특징 등을 기존 史料와 함께 고찰해보면, 高青 陳莊 西周 遺址는 齊나라 太公이 처음 봉해진 領地인 營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의 설에 불과하며 “營丘城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었는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명확한 역사적 고증을 기다리고 있다. 王恩田, <高青陳莊西周遺址與齊都營丘>, 張光明, 徐義華 主編, 《甲骨學暨高青陳莊西周城址重大發現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齊魯書社, 2014.07, pp.23-27.
- 14) 李成(919-967)은 五代부터 北宋사이에 활동한 畫家로서 字는 咸熙이고 原籍은 長安(지금의 陝西 西安)으로 선조가 唐宗室의 혈통이라 한다. 祖父 李鼎이 蘇州刺史를 역임했으며 五代 때 난을 피해 營丘(지금의 山東 昌邑)로 이주했으므로 속칭 李營으로 불렸다. 산수화가로 유명하여 북송시기 范寬, 關仝(관동)과 함께 “三家鼎峙(삼가정치)”로 회자되었으며 당시 산수화로는 고금의 첫째 가는 화가로 알려져 인물화의 대가인 吳道子와 함께 병론되었다. 술에 취해 陳州(지금의 河南 淮陽)에서 객사했다고 한다. 寒亭區地名志編纂委員會, 《寒亭區地名志》, 1989, p.200.

昌邑城西號隩區，營丘舊是太公都。不知畫手今猶在，試覓江南驟雨圖。
(畫師李成，營丘人，江南驟雨圖名於世)

이민성은 창읍현 서쪽 지역이 명당이라 강태공이 제후로 봉해졌던 제나라의 도읍인營丘가 있었음을 치하하고, 또한 이 지역 출신의 유명한 화가인李成에 대해서도 빠뜨리지 않고 함께 언급하며李成의 작품으로 유명한江南驟雨圖를 찾아 보아야겠다고 시를 마무리지었다. 짧은 시이지만營丘 지역의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축하여 전달하는 표현력이 돋보인다.

또한 이민성은 “營丘舊封” 패방으로부터 근접한 곳에서王彦方故居의 표지를 보았던지 혹은 이야기를 듣고 다시〈王彦方이 살던 옛 마을을 지나며(濰縣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시를 지었다. 이 시에서 이민성은濰縣 사람王烈이 덕행과 의로운 행동으로 고향의 사람들을 교화시켰던 미덕을 기리며 지금은 오히려 향리의 분위기가 적막하고 쓸쓸하여 예전의 명성이 간데없음을 아쉬워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동한의 賢士 왕렬이 이곳 濰縣에 은거하여
향리에서 德化를 베풀니 일시에 풍속이 교화되었으나
애석하다! 지금은 그 유풍이 끊어져 적막하기만 하니
향리 사람들아! 왕렬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過王彦方故居(在濰縣東三十里)〉
東京賢士隱於斯，德化鄉閭表一時。可惜遺風今寂寞，里人寧愧彦方知。

그런데 조선사신들의 기록을 보면營丘城의 패방은王彦方故里와 매우 근접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3), (5), (7), (8)의 사행 기록은 모두王彦方故里, 혹은彦方式化를 지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式化란 鄉里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는 장소를 뜻한다. (3)에서 金德承은 “牛埠店을 지나니彦方式化라는 표지가 걸려 있다.彦方은 곧王烈이다.”라고 기록했으나 金德承 일행은牛埠鋪를 지난 후王彦方故里에 도착한 것이다. (7)에서 申悅道 역시 “四十里鋪(즉牛埠店)를 지나니(강태공이 봉해졌다는)營丘舊封이 있었는데, 이곳이 즉王彦方故里이다.”라고 기록하였다. (2)에서 李民晟은 “王彦方故居는 濰縣에서 동쪽으로 30리 되는 곳에 있다”라고 했으니 (2), (3), (7)의 기록은 일치하는 셈이다.

즉, 조선사신들은昌邑縣城에서 출발하여 40리를 지나濰縣牛埠鋪에 도착하였고, 50리를 지나彦方式化, 王彦方故居에 도착하였는데, 즉濰縣의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급체포인寒亭鋪 부근에 도착한 것이다.

“王彦方故里”에서 “王彦方”은王烈을 가리킨다. 《後漢書》의 기록에 의하면, 동한의王烈(141-219)은字가彦方이며平原縣(지금의山東平原) 사람이다. 어렸을 때陳寔을 사사하였고

정의로운 행동으로 鄉里에 이름이 높았다. 왕렬은 효심이 지극하고 청렴하여 조정에 여러 차례 추천되었으나 三府를 모두 마다하고 나가지 않았으며 黃巾의 난과 董卓의 난을 피해 遼東으로 갔다. 그곳의 장관인 公孫度은 그를 형제의 예로 대했고 그를 찾아가 政事를 논하고서는 長史로 삼고자 했으나 그는 스스로 장사치로 행세하며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¹⁵⁾

이처럼 《後漢書》에서는 분명히 王烈을 太原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선사신들은 왜 王彦方, 즉 王烈의故里가 濰縣에 있다고 기록한 것일까. 그런데 王烈이 어디 출신인지에 관해서는 《後漢書》를 포함하여 史料에 총 세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後漢書》의 설로서 太原 사람이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三國志》의 기록으로 平原사람이라는 설이며,¹⁶⁾ 마지막 하나는 《資治通鑑》, 《齊乘》, 《明一統志》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王烈은 北海 사람이라는¹⁷⁾ 설이다. 明末 《(萬曆)萊州府志》에는 “王烈은 《通志》, 《舊志》 등에 따르면 北海 사람이라고 하나 지금 《漢書》를 보면 太原사람이다.”¹⁸⁾라고 하여 王烈이 太原 사람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15) 하루는 소도둑을 잡았는데 도둑이 죄를 자백하면서 “죄는 달게 받겠으니 王彦方에게만은 알리지 말아 달라”고 했는데 王烈이 이를 듣고 그를 용서하고 배 한 단을 주어 보냈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王烈이 말하기를 “도둑이 내가 그 잘못을 전해듣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이미 恥惡之心(죄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부끄러움을 알므로 반드시 개과천선할 것이니 이런 방식으로 그를 격려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그 후에 어떤 노인이 길에서 칼을 잃어버렸는데 길을 가던 행인 한 명이 이를 보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길을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서야 노인이 돌아오자 그 칼을 되찾아 주고는 그냥 떠나려고 했다. 노인은 그 사람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여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는 이러한 사실을 왕렬에게 알렸다. 왕렬이 사람을 시켜 알아보니 바로 이전에 그가 용서하고 배 한 단을 선물한 그 소도둑이었다! 왕렬은 효심이 지극하고 청렴하여 조정에 여러 차례 추천되었으나 三府를 모두 마다하고 나가지 않았다. 黃巾의 난과 董卓의 난을 피해 遼東으로 갔는데, 公孫度은 그를 형제의 예로 대했고 그를 찾아가 政事를 논하고서 長史로 삼고자 했으나 그는 스스로 장사치로 행세하여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曹操가 王烈이 高名하다는 소리를 듣고 불렀으나 역시 가지 않았다. 建安 24년(219)에 遼東에서 죽었으니 향년 78세였다. 贊하여 말하기를 ‘도리를 실천함에 어긋남이 없고 의로움에 임하여 망령됨이 없네. 말하면 그대로 실천하여 행동이 반듯하고 말과 행동에 차이가 없네. 이처럼 강직하고도 결백하니 도를 실천하여 큰 덕을 이루었네’라고 했다.(王烈, 字彦方, 太原人也, 少師事陳寔, 以義行稱鄉里. 有盜牛者主得之, 有盜牛者主得之, 盜請罪曰: “刑戮是甘乞, 不使王彦方知也.” 烈聞而使人謝之, 遺布一端. 或問其故, 烈曰: “盜懼吾聞其過, 是有恥惡之心. 既懷恥惡必能改善, 故以此激之.” 後有老父遺劍於路, 行道一人見而守之. 至暮, 老父還, 尋得劍, 怪而問其姓名, 以事告烈. 烈使人推求, 乃先盜牛者也. 察孝廉三府並辟, 皆不就. 遭黃巾董卓之亂, 乃避地遼東. 夷人尊奉之太守, 公孫度接以昆弟之禮. 訪酬政事, 欲以爲長史, 烈乃爲商賈自穢, 得免. 曹操聞烈高名, 遣徵不至. 建安二十四年, 終於遼東, 年七十八. 贊曰: 乘方不忒, 臨義罔惑. 言獨行之人, 乘履方正, 不差二也. 惟此剛潔, 果行育德.”)(劉宋)范曄 撰, 《後漢書》卷八十一《獨行列傳第七十一》, 百衲本景宋紹熙刻本版.

16) “(管寧)聞公孫度令行於海外, 遂與原及平原王烈等至于遼東度虛館, 以候之.” (晉)陳壽 撰, 《三國志》卷十一《魏書十一》, 百衲本景宋紹熙刊本版.

17) “公孫度威行海外, 中國人士避亂者多歸之, 北海管寧、邴原、王烈皆往依焉. ……王烈器業過人少, 時名聞在原、寧之右, 善於教誘鄉里.” 《資治通鑑》卷第六十《漢紀五十二》, 四部叢刊景宋刻本版; “王烈, 亦北海人.” 《齊乘》卷六《人物》, 清 乾隆 四十六年刻本版; “王烈本北海人, 漢末避地遼東.” 《明一統志》卷二十五《萊州府》, 清 文淵閣四庫全書本版.

18) “王烈, 通志舊志以爲北海人, 今考《漢書》太原人.” (萬曆) 《萊州府志》卷首《考異》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版.

그러나 당시 현지에서는 王烈이 北海 출신, 곧 濰縣 사람이라는 설이 널리 유전되고 있었고 조선사신들도 현지인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사실로 받아들인 것 같다. 《(民國)濰縣志稿》의 기록에 따르면, “城의 동쪽 第八區 構家莊 서남쪽에 俗稱 王彦章塚(왕언장총)이 있다. 彦章은 後梁 東阿 사람으로 그의 무덤이 여기에 있을 수 없다. 어떤 설에는 여기의 彦章은 바로 後漢 王烈을 가리킨다고 하며 字가 彦方이고 北海 平原縣 사람으로 ‘章’은 ‘方’ 字의 誤讀이라고 한다. 역시 정확한 것은 아니다.”¹⁹⁾라고 하였다. 構家莊은 濰縣 동쪽 50리에 있으며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前朱里村이다.

조선사신의 (2), (3), (7)의 기록과 《(民國)濰縣志稿》의 기록을 함께 종합해보면 構家莊에 있던 王彦章의 무덤은 바로 王彦方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결국 왕렬의 무덤 유적은 寒亭鋪 부근에 있지 않았고 “營丘舊封” 유적지 역시 “濰縣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었으므로 濰縣에서 동북으로 30리 떨어진 寒亭鋪와는 거리가 좀 있는 셈이다. 그러나 명말 당시 현지인들은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寒亭鋪 부근에 “營丘舊封”와 “彦方式化/王彦方故居”라고 쓰인 패방을 세워 그들 고장의 역사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 듯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조선사신들의 사행록 기록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營丘舊封”, “彦方式化(王彦方故居)”, 寒亭鋪 등은 모두 같은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 寒亭區 文物保護管理所 所長 崔永勝 씨의 설명에 따르면, 옛날 寒亭鋪는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寒亭一村이다.²⁰⁾

필자 일행은 崔永勝 소장의 안내로 寒亭一村에 지금까지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寒亭古驛, 古驛道, 寒亭鋪 西大門 유적을 찾아볼 수 있었으며 古驛道 곁에 남아 있는 明代 關帝廟 遺跡도 확인하였다.



〈그림 4〉 寒亭一村 내의 古驛道 유적

3.4 “古亭寒水” 欄門(寒泔河/泔河)

(8)의 글에서 鄭斗源은 “(昌邑縣城에서) 70리를 가면 欄門이 있고 ‘古亭寒水’라 쓰여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古亭寒水”는 바로 明末 寒亭鋪 서측에 있던 寒泔河(한착하)이다. “寒泔

19) “在城東第八區構家莊西南隅, 俗稱爲王彦章塚。按彦章後梁東阿人墓不在此, 或云後漢王烈, 字彦方, 北海平原縣人。章乃方字訛讀, 亦非所祥。”《(民國)濰縣志》卷七《遺跡》

20) 明清時期 寒亭鋪 즉, 지금의 寒亭一村은 夏나라 때는 寒泔國에, 唐나라 때는 寒水縣에 속했다. 明 洪武二十一年(1388)에는 崇道鄉 寒亭社에 속했다. 1933년에는 寒亭鎮, 1958년부터 1982년까지는 寒亭人民公社, 1984년5월부터 寒亭區 寒亭鎮에 속해오고 있으며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이다. 山東省 濰坊市 寒亭區 史志編纂委員會編, 《寒亭區志》, 齊魯書社, 1992, p.46.

河는 濰縣에서 東北으로 30리 떨어진 곳에 있으며 車流莊(차류장)에서 발원하여 寒亭 지역 80리를 흘러 바다로 유입된다. 春秋시기에 寒浞國(한착국)이 있었기에 그와 같은 이름이 붙었다.”²¹⁾ “古亭寒水”는 정확히 말하면 昌邑縣城에서 50리 떨어져 있으며 정두원이 기록한 것처럼 70리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두원은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 전체 거리를 80리로 정확히 기록했으나 “營丘舊封” 欄門부터는 어떤 이유에선지 중국 지방지 기록과 차이가 난다.

寒浞은 韓浞이라고도 하며 전설에 따르면 夏나라 때 東夷族의 首領으로 원래 寒 땅(지금의 山東 濰坊市 동북지역)에 살았으나 그 후 그들의 임금인 伯明에게 내쫓겨 後羿(후예)에게 투항했다. 後羿는 그를 수하로 삼아 夏나라의 임금과 재상을 몰아내고 王位를 탈취하였다. 後羿가 재위에 오르자 정사를 돌보지 않으므로 寒浞은 기회를 틈타 정권을 잡고 도읍을 寒亭에다 정하고 寒國이라 칭하였다. 寒浞 父子가 60여 년째 재위를 차지하던 甲辰年에 帝相의 아들인 少康이 同姓 部落을 규합하여 寒浞을 토벌했으니 그의 아들 寒澆는 피살당했고 이때 寒國은 멸망했다. 寒浞河는 바로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의 浞河이다. 浞河는 濰坊市 寒亭區 東南部 일대 곧, 古寒國(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일대로 夏나라 때 寒浞이 스스로 王을 칭하면서 다스리던 지역)을 가로질러 흘렀으므로 寒浞河라 불렸다. 이후 명칭에 변화가 생겨 지금은 浞河로 불리고 있다.

《濰縣誌稿 疆域志》에 “寒浞河는 俗稱 浞河라고 하니 곧 古寒水이다.(寒浞河俗稱浞河, 卽古寒水)”라고 했다. 착하는 두 곳에서 발원하는데, 하나는 서쪽으로 坊子區 車留莊鄉 常令公山の 서쪽 기슭이고, 다른 하나는 동쪽으로 坊子區 浦泉鄉 南趙莊이다. 두 지점에서 흘러온 강물은 寒亭區 倉上村 북쪽에서 만나 寒亭區를 지나 昌邑市 경내로 들러든다. 전체 길이는 33km이고 寒亭區 경내를 11km에 걸쳐 흐르는 季節性 河流이다.²²⁾



〈그림 5〉 寒亭一村的 서측을 흐르는 지금의 浞河(옛날의 寒浞河)

21) “寒浞河在濰縣東北三十里，源出車流莊，流經寒亭八十里入海，春秋立寒浞國，因名。” 《(嘉靖)山東通志》卷六《山川下》，明嘉靖刻本

22) 寒亭區 地名志編纂委員會，《寒亭區地名志》，1989, p.236.

3.5 濰縣二十里舖(平仲故里/晏平仲故里/朱毛舖)

위글에서 (1)을 제외한 (2), (3), (4), (5), (6), (7), (8)의 사행 기록은 모두 “晏平仲故里”, “平仲故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晏平仲故里”란 晏嬰의 무덤 소재지 혹은 晏嬰의 살던 옛 마을을 가리키는 것이다. 晏平仲은 춘추시대 齊나라 재상 晏嬰(안영, ?-B.C.500)을 가리킨다. 姓은 姬(一說에는 子라고 함), 氏는 晏, 字는 仲, 諡號는 平이며 晏子로 존칭된다. 晏嬰은 재상이 된 뒤에도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이나 입는(晏嬰狐裘 안영호구의 고사로 널리 알려짐) 검소한 생활로 존경을 받았다. 齊莊公이 崔杼에게 살해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후환이 두려워 나서지 못했으나 안영만은 신하의 도리를 다해 크게 뜻하며 問喪하는 기개가 있었다. 사마천은 《史記》에서 안영을 높게 평하여 그를 위해 말채찍을 잡고 수레를 몰 수만 있어도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그의 저술로는 《晏子春秋》가 후대에 전해지고 있다. 《史記》에 따르면 안영은 萊州 夷濰(지금의 山東省 濰坊市) 사람이라고 한다.²³⁾

濰縣은 안영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조선사신들은 유현의 안평중고리를 지나면서 검약하고 강직했던 안영의 명성을 기리는 시를 여러 편 지어 남겼다. 먼저 李民晟은 〈안평중이 살던 옛 마을을 지나며(濰縣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시에서 고귀하고 능력이 뛰어나며 예법에 밝았던 안영의 인품을 기리고 있다.

齊나라 재상 안평중은 고귀하고 능력이 있었으나 오만하지 않았고
 학식이 깊고 명철하며 특히 예교를 펼쳐 자못 사람들과 잘 사귀었는데
 어찌하여 齊景公이 총애하던 용사 3인을 귀한 복숭아 2개를 써서 모살했던가?
 가난한 집에서 불 때기를 기다리듯이
 경박하고 不仁한 풍조가 만연한 것을 성급하게 바로잡고자 했네.
 〈過晏平仲故里(在濰縣東二十里)〉
 平仲相齊國，貴而能不驕。深明惟禮效，頗善與人交。
 何意殺三士，爲謀費二桃。貧家猶待火，嗟矯末風澆。

23) 晏嬰은 字가 平仲이고, 齊나라 公族으로 大夫가 되어 靈公, 莊公, 景公을 섬김에 節儉을 몸소 실천하여 제 후들에게 이름이 높았다. 식사 때 고기반찬을 두 가지 이상 올리지 않았고, 처자에게 비단옷을 입히지 않았으며, 제사 고기가 제사 그릇을 덮지 못했고, 여우 갖옷 한 벌을 30년이나 입었으니, 세상 사람들은 누추하다고 여겼으나 안영 스스로는 이런 생활을 감내했다. 조정에 있을 때, 임금이 그의 말을 따르면 그 말을 더욱 신중히 했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행동을 더욱 신중히 했다. 비록 재상이 되었으나 나중에 陳氏(田氏)가 난을 일으켜 齊나라의 왕이 될 것임을 알고 계찰의 충고에 따라 녹읍과 정권을 내어놓고 난을 피했고 때때로 의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널리 구하고자 하였다. 《史記》에 따르면 萊주의 夷濰(지금의 山東省 濰坊市) 사람이다.(字平仲，齊公族爲大夫，於齊事靈公、莊公、景公，以節儉力行顯名諸侯。食不重肉，妾不衣帛，祀其先人豚肩不揜豆，一狐裘三十年，世以爲陋，而晏子行之自若。其在朝，君語及之，則危言語不及之，則危行。雖嘗爲相，然知陳氏必有齊國，乃聽季筭之言，納邑與政，及其間也。從容風議，時有所匡救焉。今按《史記》作萊之夷人。) 《(嘉靖)山東通志》卷二十八《人物一》，明 嘉靖 刻本

이민성은 특히 안영과 관련된 일화 중에 그가 齊景公이 아끼던 용사 3인에게 복숭아 2개를 주어 서로 다투어 죽이게 만든 모략을 썼던 일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안영이 평소의 명망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은 하루빨리 불의한 풍습을 바로잡고자하는 성급함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나름의 생각과 비평을 섞어 아쉬움을 표현하였다.

1625년 聖節使臣의 일행이었던 全滉 역시 안평중고리를 지나면서 그를 기념하여 <晏平仲故里를 지나며(過晏平仲故里)>라는 시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30년 동안 여우 갓옷 한 벌을 입었고
 제사에 올리는 돼지고기가 제기를 채 덮지 못할 정도로 적었으나
 임금을 현달하게 하고 공훈이 드높았으니 어찌 비천하다 하겠는가?
 다만 文宣王이신 仲尼 孔夫子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여
 노나라에 비해 功業이 십분 퇴보했을 따름이라네.
 <過晏平仲故里>
 三十年裘一豆豚。顯君功烈豈卑云。祇緣不識宣尼聖。至魯功程退十分。

全滉은 안영이 재상이 되어서도 30년간 여우 갓옷 한 벌만을 입고 또 제기에 고기를 올릴 때 제기를 덮지 않도록 하는 등 검약하였던 미덕과 임금을 보좌하여 훌륭한 치적을 쌓도록 하였던 그의 정치적 재능을 칭찬하였다. 그러나 전식은 마지막에 일침을 놓으며 안영이 제나라에서 재상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공자의 가르침과 유학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나라의 공적이 노나라에 비해 쇠퇴한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그리고 1626년 사신단의 정사였던 金尙憲은 북경행의 사행 노정 중에 안평중고리를 지나면서 역시 감개하여 <晏平仲故里를 지나며(제2수는 濰州에서 지었다)>라는 시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공자께서 사람과 잘 사귀다고 칭찬하셨고
 재상으로 등용되어서는 그 군주를 현달하게 하였으니
 어찌 그가 육척 단신임을 싫어하겠는가!
 만고의 역사에 장신이 그 얼마나 많았는가!
 <晏平仲故里(二首在濰州)>
 聖稱善交人。士逢知己伸。何嫌六尺短。萬古幾長身。

金尙憲은 안영이 예법에 밝아 사람들과 잘 교유하였다는 공자의 칭찬을 언급하고 또한 그가 재상으로서 제나라의 군주를 잘 보필하여 치적을 쌓도록 하였던 정치적 능력을 칭송하였다. 그리고 안영과 관련된 일화를 들어 그가 키가 작았음을 언급하면서 신체적 단점이 위인의 업적과 명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안영과 관련된 일화를 찾아서 시의 내

용에 녹여낸 것이 매우 자연스러우니 그 가운데 재치 있는 필력이 느껴진다.

그렇다면 안평중고리에서 안영의 묘는 실제로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齊乘》에는 “晏子の墓는 臨淄 古城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唐 貞觀 연간에 15步 이내에서 땀감을 채취하는 것을 금했다. 高密, 平原에도 각각 그의 墓가 있으니 모두 3곳이다.”라고 하였으며, 《晉載記》의 일화를 들어 臨淄에 있는 것이 진짜일 것이라고 했다.²⁴⁾ 《(萬曆)萊州府志》에서도 “춘추시기 晏平仲의 墓는 濰縣에서 남쪽으로 30리 떨어진 곳인 臨淄에 있다”²⁵⁾라고 했다. 그러나 이후의 중국 지방지에는 그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는 “營丘舊址”의 소재지에 대한 설이 서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명말 濰縣 현지인들은 營丘가 濰縣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晏嬰의 묘도 濰縣에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문제는 안영의 묘의 소재지가 濰縣 현지에서조차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萬曆)萊州府志》에는 유현의 남쪽 30리에 있다고 했으나 《(民國)濰縣志稿》에는 “춘추시기 晏嬰의 墓는 《舊誌》에 따르면 城의 동북 10里堡에 있으며, 《水經註》에 따르면 여기 유현이 아니라 臨淄에 있다. 그러나 지금은 고증할 길이 없다”²⁶⁾ 라고 하였다. 이처럼 안영의 묘의 위치를 정확하게 고증할 수 없으므로 “晏平仲故里” 또한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 지금은 확정할 수 없다.

그러나 윗글 (2), (7)의 사행 기록에서 李民歲와 申悅道는 모두 晏平仲故里가 濰縣에서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곳, 즉 유현 동쪽으로 20리 떨어진 급체포인 朱毛鋪에 있다고 기록했다. 조선사신이 기록한 바의 “晏平仲故里”는 분명히 濰縣에서 동북쪽으로 20리 떨어져 있는 朱毛鋪이다. 朱毛鋪는 지금의 濰坊市 寒亭區 開元街道 胡家朱茂村, 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玄家朱茂社區, 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杜家朱茂社區, 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李家朱茂社區 등을 포함하는 넓은 지역으로 확장 개발되었다.

24) 晏子の墓는 臨淄 古城에서 북쪽으로 3리 떨어진 곳에 있다. 唐 貞觀 연간에 15步 이내에서 땀감을 채취하는 것을 금했다. 高密, 平原에도 각각 그의 墓가 있으니 모두 3곳이다. 《晉載記》에 따르면 慕容德이 營邱에 올라 晏嬰의 무덤을 보고 좌우의 신하를 보면서 말하기를 ‘禮에 大夫는 城 근처에 안장하지 않는다고 한다. 晏平仲은 옛날 禮에 통달한 현자인데 살아서는 城 안에서 살고 죽어서는 城 근처에 안장되었으니 어찌서 그러한가?’ 靑州 秀才 晏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孔子께서도 그 앞에서 스스로 신하로 칭하셨으니 옛 현인께서 어찌 그런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자기집 대문의 들보를 높이고 禮를 널리 펼쳐서 政事가 그의 집 문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스스로 겸약함으로 세상을 바로 잡고자 평생 좁고 낮은 곳에 거하시다가 죽었으니, 어찌 땅을 가려 장지를 선택했겠습니까? 집의 대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무덤을 둔 것은 그러한 평소의 뜻을 사람들이 알기를 바랐기 때문이니 제가 생각컨대 臨淄의 이 墓는 진짜입니다.’ 라고 했다(晏子墓(在臨淄古城北三里。唐貞觀中, 禁十五步內不得樵採。高密、平原又各有墓, 與此爲三歟。按晉載記曰, 慕容德登營邱望晏嬰冢, 顧謂左右曰, 禮大夫不逼城而葬, 平仲古之賢人達禮者也, 而生居近市, 死葬近城, 豈有意乎? 靑州秀才晏謨對曰, 孔子稱臣, 先人之賢豈不知? 高其梁豐其禮, 蓋政在家門, 故儉以矯世, 存居湫隘卒, 豈擇地而葬乎? 所以不遠門者, 冀悟平生生意也。以謨考之, 臨淄墓爲眞。) 《齊乘》卷五《風土》, 清乾隆 四十六年刻本

25) “周晏平仲墓在(濰)縣南三十里。一在臨淄。”《(萬曆)萊州府志》明 萬曆 三十二年刻本版。

26) “周晏嬰墓, 《舊誌》在城東北十里堡。按《水經註》晏墓在臨淄不在此, 今亦失其處。”《(民國)濰縣志稿》

4. 현재 濰坊市 奎文區 구간인 사행 노정

아래는 조선사신들이 이동한 昌邑縣城에서 濰縣城까지의 대명사행노정 중에서 현재의 濰坊市 奎文區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행 기록들을 살펴본 것이다.

(1) 趙澱 《燕行錄(一云朝天錄)》1623년 북경행 : 16일 癸酉일, 맑음, 바람이 많이 불었다. 아침에 (昌邑縣城 東舖를 출발하여) 50리를 가서 寒亭店에 도착하여 점심을 해 먹었다. ……이름 모를 다리 하나에 이르러 이를 건너 후 濰縣 北關 客店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來程 : 十六日, 癸酉, 晴, 風亂。朝發(昌邑縣城東舖), 五十里到寒亭店中火。……行至一水橋, 渡至濰縣北關客店宿。)

(2) 李民宥 《癸亥朝天錄》1623년 북경행 : 7월 1일 己丑일 비. 이날 濰縣에 도착했다. 아침에 출발하여 昌邑城의 동쪽을 지나 방향을 남쪽으로 바꾸어 걸었다. 정오에 寒亭店에서 쉬었다. ……石橋 하나를 건넜는데 漁河橋라 한다. 다시 濰河를 건너서 濰縣城 밖의 東館駟에 도착했다. 濰河는 濰縣城에서 동쪽으로 몇 리 밖에 있는데 密州界에서 昌邑地를 거쳐 濰縣을 지나 바다로 유입된다. 背囊河라고도 하며 韓信이 龍且를 무찌른 곳이다. 昌邑縣에서 여기까지 80리이다. (來程 : 七月初一日, 己丑, 雨。到濰縣。朝, 發行過昌邑城東, 迤南而行。午, 憩寒亭店, ……過一石橋。名 : 漁河橋, 渡濰河, 抵濰縣城外之東館駟。濰河在城東數里, 自密州界經昌邑地過濰縣入海, 一云背囊河, 韓信破龍且之處也。自昌邑到此八十里。)

(3) 李民宥 《癸亥朝天錄》1624년 귀국행 : (3월) 16일 庚午일. 이날 王老店에 도착했다. 아침에 昌樂縣에서 출발했다. ……濰縣 北館駟에 도착하여 아침밥을 해먹고 東渡河를 건넜고 孔文學舊治(濰縣 동쪽 10리)와 晏平仲故里(濰縣 동쪽 20리)를 지나 寒亭店에서 잠시 쉬었다가 王老店(昌邑縣 경내)에 도착했다. 이날 약 110리를 이동했다. (歸程 : (三月)十六日庚午。到王老店。早發昌樂。……抵濰縣之北館駟。朝火後, 過東渡河, 過孔文學舊治(濰縣東十里), 晏平仲故里(濰縣東二十里), 憩寒亭店。抵王老店(昌邑地), 約行一百一十里。)

(4) 金德承 《天槎大觀》1624년 〈濰縣〉: …… 또한 文學甘棠 패방도 있는데 곧 孔融이 정사를 편 곳이다. 앞으로 淮河가 흐르는데 昌邑縣의 濰水가 여기 濰縣을 경유하는 것이다. 濰縣의 동쪽 끝에 白浪河 나무다리가 있다. 백랑하는 擂鼓山(뇌고산)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흘러 발해로 유입되는데 현령 竇瑑(두염)이 이 강물을 끌어와 농지에 대었다 하여 竇公渠(두공거)라고도 한다. (濰縣, …… 又有文學甘棠, 是孔融也。前有淮河, 是昌邑之濰水, 而亦經此縣。縣之東底, 有白浪河板橋, 源出擂鼓山, 北流入海, 令竇瑑引此溉田, 號竇公渠。)

(5) 李德沔 《朝天錄(一云航海錄)》1624년 북경행 : 18일 己巳일. (昌邑縣 縣城에서 출발하여) 濰縣에서 유숙하였는데 이날 하루 晏平仲故里, 立表旌閭를 지났고 寒亭 古驛亭도 지났는데 夏나라 寒促을 지명으로 삼은 것이다. 濰河橋는 바로 淮陰侯 한신이 모래주머니로 독을 쌓았

었다는 곳이다. 이날은 총 80리를 이동했다. (來程：十八日，己巳。(從昌邑縣縣城出發)宿濰縣，所過有晏平仲故里、立表旌閭。又有寒亭古驛亭，以寒促而名。濰河橋，卽淮陰之囊沙上流處也。是日，行八十里。)

(6)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1624년 북경행 : 18일 己巳일 맑음. 牛阜店에서 점심을 해먹고 濰縣 北館里에서 유숙했다. 이날은 총 100리를 이동했다. 이날 지나간 곳은 ……文學甘棠은 孔融의 명성이 남아 있는 곳이라. 濰河橋 위에 서서 淮陰侯 한신의 囊沙의 고사를 떠올려보니 龍且의 혼이 이곳 어디엔가 머물러 있을 것 같았다. (來程：十八日，己巳，晴。中火牛阜店，宿濰縣北館里。是日，行一百里。所過有……文學甘棠，孔融之流芳歟。濰河橋上，憶淮陰之囊沙，則龍且之魂，此焉何托。)

(7)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1625년 귀국행 : (3월) 10일 戊午일 맑음. 아침에 안개가 짙게 졌다. (濰縣 北關에서 출발하여) 白狼河와 大濰河를 건넜는데 濰河의 하류는 수심이 깊어 배의 운행이 느리므로 상류에 수심이 얕은 곳으로 건넌 것이다. 孔文學甘棠, 晏平仲故里, 寒亭古驛, 王彦方式化를 차례로 지나 王祿店 王老貞의 집에서 점심을 해먹고 新河를 건너 新河店 富씨 姓을 가진 민가에서 유숙했다. (歸程：(三月)初十日，戊午，晴。朝大霧。(從濰縣北關發行)渡白狼河、大濰河，濰河下灘水深，舟行遲，故由上淺灘而渡。歷孔文學甘棠、晏平仲故里、寒亭古驛、王彦方式化，至王祿店王老貞家中火，渡新河，宿新河店富姓家。)

(8) 全湜 《沙西航海朝天日錄》1625년 북경행 : (10월) 16일 辛卯일. (昌邑縣에서 출발하여) 정오에 寒亭古驛에 도착했고 저녁에 濰縣에 도착하여 유숙했다. 유현성의 서쪽에 한신의 囊沙古蹟이 있었다. 濰水를 건너고 晏平仲故里에 갔을 때 絶句를 각각 한 수 지었다. (來程：(十月)十六日，辛卯。(從昌邑發行)午到寒亭古驛。夕，至濰縣止宿。城西，有囊沙古蹟。過濰水及晏平仲故里。有詩各一絶。)

(9) 申悅道 《朝天時間見事件啓》1628년 북경행 : (10월) 11일 戊戌일 맑음. 아침에 昌邑縣에서 출발했다. ……정오에 寒亭店에서 쉬었다. ……十里舖에 도착하니 孔融廟가 있었는데 패방에 “文學甘棠”이라 현액되어 있다. 古白浪河를 건넜는데 패방에 “북으로 渤海로 통하고 남으로 穆陵(穆陵關, 지금의 山東省 臨朐縣 大峴山 일대)에 가닿는다”라고 써있다. 저녁에 濰縣 東館驛에 도착했다. 濰縣은 萊州에 속하며 昌邑縣으로부터 80리 떨어져 있다. (來程：(十月)十一日，戊戌，晴。早發昌邑，……午，憩寒亭店。……十里舖，有孔融廟，揭號文學甘棠。渡古白浪河，榜曰：“北通渤海 南遡穆陵”。夕，抵濰縣東館驛。縣屬萊州，距昌邑八十里。)

(10) 鄭斗源 《朝天記地圖》1630년 <昌邑縣圖> : 昌邑縣에서 ……70-80리를 가면 欄門이 하나 있는데 “文學甘棠”이라 편액되어 있으며 漢나라 孔融이 선정을 베풀던 장소이다. 다시 80리를 가면 欄門이 하나 있는데 “古白浪河”라고 써 있으니 唐 北海令 竇瑛(두염)이 그 강물로 밭에 물을 대었다는 곳이다. 石橋가 하나 있는데 白浪橋라고 하며 그 곁에 또 欄門이 하나 있

는데 “북으로는 渤海로 통하고 남으로는 穆陵에 가닿는다”라고 쓰여 있다. (自昌邑縣, ……行七十八里, 有欄門, 書之曰: “文學甘棠”, 漢孔融宣化之地. 行八十里, 有欄門, 書之曰: “古白浪河”, 唐北海令竇琰因此水概田處. 有石橋, 名白浪橋. 又有欄門, 書之曰: “北通渤海 南溯穆陵”).

위의 조선사신들의 사행 기록의 경유지로 등장하는 지명은 十里舖, 孔文學舊治, 文學甘棠, 濰河(囊沙上流處), 漁河橋, 濰河橋, 白浪河, 白狼河, 白浪橋, 北通渤海 南溯穆陵欄門, 東渡河, 濰縣 등이다. 이 지명들을 현재의 지명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濰坊市 奎文區 구간에 해당하므로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4.1 十里舖(孔文學舊治/“文學甘棠”欄門/趙疇舖)

(3), (6), (7)과 (9), (10)의 기록에 따르면 “孔文學舊治”, “孔融廟”, “文學甘棠” 牌門은 모두 동일한 지점이다. 濰縣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孔融의 祠廟가 있었으며 사묘 밖에 “文學甘棠”의 牌坊이 있었으니, 곧 濰縣에서 동쪽 10리에 있던 趙疇舖(조탄포) 부근에 孔融의 廟와 “文學甘棠” 牌坊이 있었다.

“文學”는 공융의 字이고 “甘棠”²⁷⁾은 훌륭한 관리를 칭송하는 것이다. 孔融(153-208)은 後漢 魯國 사람이며 공자의 20대손으로, 어려서부터 재능이 뛰어났고 문필에도 능하여 建安七子の 한 사람으로 불렸다. 漢獻帝 때 北海相이 되어 학교를 세우고 賢良을 천거했으며, 少府와 太中大夫를 역임하면서 명성을 천하에 떨쳤다. 그러나 스스로 자부심이 높은 나머지 曹操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구사하다가 면직되었고, 세력을 확장하던 조조를 비판한 일로 인하여 결국 조조의 원한을 사게 되어 일족과 함께 처형되었다.

《萊州府志》에 수록된 <孔融祠記>에 의하면, “東漢 시기 사람인 孔融은 中軍侯, 虎賁中郎將 등의 직을 맡았었고 董卓을 내쫓고자 여러 차례 간언을 올리고 공격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三府에서 모두 천거하여 孔融이 北海相이 되었는데 마침 황건적의 난이 여러 州에서 일어났다. 유현이 도적떼를 막을 수 있는 요충지였으므로 孔融은 유현에서 그 세력을 꺾고자 했다. 공융은 유현에 도착하여 士民을 모아 의병을 일으켜 군대를 조직하였고 여러 차례 황건적을 맞아 싸워 모두 승리했다. 이에 그 백성들이 평안무사하게 되었으니 城邑을 쌓아 방비를 강화하고 학교를 세워 儒術을 장려했으며 賢良한 인재를 천거했다. 또한 난리통에 자식

27) 《史記 燕召公世家》, “周나라 武王이 紂王을 토벌하고 召公을 北燕에 봉했다. ……召公이 鄉邑을 순행하다가 발배나무[棠樹] 아래에서 죄인을 판결 하는 등 정무를 행했는데 위로 侯伯부터 아래로 庶人에 이르기까지 그 처결에 순응하여 직분에 어긋남이 없었다. 召公이 죽자 백성들이 召公의 바른 정사를 그리워하여 棠樹를 함부로 자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甘棠>의 詩를 지어 棠樹를 칭송하였다.(周武王之滅紂, 封召公于北燕……召公巡行鄉邑, 有棠樹, 決獄政事其下, 自侯伯至庶人各得其所, 無失職者. 召公卒, 而民人思召公之政, 懷棠樹不敢伐, 哥詠之, 作《甘棠》之詩.)” 이후 “甘棠”은 훌륭한 관리를 칭송하는 상징이 되었다.

이 없이 죽은 자와 사방을 떠돌다 죽은 자들을 위해 관을 짜서 시신을 수습하여 장례를 치러 주었다. 공융이 북해군을 다스린 지 6년이 되자 그 공적이 널리 알려졌고 주위 백성이 모두 그 혜택을 입었기에 대대로 칭송받았으며 그를 기리는 노래가 백성들 사이에 전해져 잊혀지지 않았다.”²⁸⁾라고 한다.

孔融이 北海相으로서 濰縣 지역을 다스렸고 특히 황건적과의 전투 중에 산둥에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하였던 곳이 濰縣이었기 때문에 이곳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인 공융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孔文學舊治”라는 패방이 세워졌던 듯하다. 조선사신들은 이 패방을 보면서 동한 시기 인물인 공융의 사적을 떠올리고 그를 기리는 시를 여러 편 남겼다.

1623년 주청사신단의 서장관 李民晟은 〈東漢 孔融이 다스린 곳을 지나며(濰縣 동쪽 10리에 있다)〉라는 시를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奸雄 曹操는 음흉한 모략으로 皇權을 탈취하고자
 천하의 현자와 영웅을 차례로 제거했네.
 공융을 죽이지 않았으나 마침내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도모하니
 간신 郗慮(치려)는 호응하여 거짓된 사실을 전하여 조조가 공융을 죽이게 했네.
 큰 뜻을 품은 호쾌한 풍모 마치 살아 눈앞에 있는 듯한데
 그 악행을 터럭을 뽑아 세어도 모자랄 간웅의 손에 죽으니 여한이 깊기만 하다.
 천추의 세월을 넘어 공융과 벗 삼은 조선선비는 벽차오르는 감개를 누를 수 없어
 옛 유적지 앞에 말을 멈추고 오랫동안 차마 떠나지 못한다네.
 〈孔文學舊治(在濰縣東十里)〉
 老瞞如鬼謀移鼎，海內賢豪次第鋤。不殺孔君終作梗，相圖鴻豫故詒書。
 懷風英爽生如在，擢髮姦雄死有餘。尙友千秋增感慨，停驂不忍過遺墟。

李民晟은 시 속에서 문필이 뛰어나고 식견이 높았던 공융이 모략에 빠져 간웅 조조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된 일을 깊이 탄식하였고, 그러다보니 깊은 생각에 빠져 오랫동안 유적지를 맴돌며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아마도 조선선비 이민성은 뛰어난 선비들이 간신의 모략에 빠져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경험하면서 오래전 옛 중국의 뛰어난 인재에게 닥쳤던 불운에 깊게 공감하였을지도 모른다.

1628년 冬至聖節謝恩使의 서장관이었던 申悅道 역시 〈동한 공융이 어진 정치를 펼친 곳이라고 표시하는 패문을 지나며(濰縣의 동쪽 10리 거리에 있다)〉라는 시를 지어 공융을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28) “東漢孔融氏由中軍侯遷虎賁中郎將，會董卓廢立，數正言攻之，卓乃諷。三府同舉爲北海相。時黃中寇數州，惟濰最爲賊衝，實欲陰傷之。公到郡即收士民起兵講武。賊雖屢至，屢敗。其民賴以安戢無事，且爲制城邑，立學校表顯儒術，薦舉賢良。郡人無後及四方遊士有死亡者，皆爲棺槨以斂葬之。在郡六年，政聲赫然，四境之人被其惠化之深，相傳累世，猶歌思不忘” (明)黎淳，〈孔融祠記〉，(萬曆)《萊州府志》卷八 明 萬曆 三十二年刻本版。

내가 동한의 절개 있는 선비 공융을 깊이 흠모했으니
 그 고명한 이름 수 천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유전되네
 그가 어진 정치를 펼쳤다는 이곳 발배나무는 그 때처럼 녹음을 질게 드리우니
 나는 옛 節士가 그리워 수레의 난간 잡고 오랫동안 떠나지 못한다.
 〈過孔文學甘棠牌門(在濰縣東十里)〉
 我愛孔文學，高名千載流。棠陰留古蹟，憑軾且夷猶。

申悅道 역시 절개가 있고 재능이 뛰어났던 공융이 조조에게 굽히지 않고 바른 말을 하다가 죽임을 당한 것을 아쉬워하며 그 절개를 흠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甘棠의 고사를 인용하여 발배나무가 녹음을 드리우는 정경과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던 공융의 업적을 함께 연상하며 유적지를 쉽게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묘사하여, 공융에 대한 흠모의 정과 아울러 훌륭한 목민관으로서의 포부를 함축적으로 표현해내었다.

그런데 明 萬曆 32년에 간행된 《(萬曆)萊州府志》에 의하면, 1604년 濰縣에는 단 한 곳의 孔融祠가 있었는데 “縣治의 동쪽에 위치했으며 宋 政和 4년에 건립되었고 明 成化 연간에 知縣 宋兪(송태)가 重修하였다.”²⁹⁾ 한편, 淸 康熙 11년에 간행된 《(康熙)濰縣志》에 따르면 “공융의 사당인 孔北海祠는 두 곳이다. 하나는 關公廟 앞에 있는데 □□邑 사람 丁汝奇가 創建했다. 다른 하나는 北海道司의 서측에 있는데 有司가 봄가을로 제사를 올렸다.”³⁰⁾ 종합해보면 1604년 전후로 濰縣에는 濰縣城 안 縣治의 동측에 “孔融祠”라는 이름의 祠堂이 이미 있었다. 1672년 전후하여 “孔融祠”는 “孔北海祠”로 이름이 바뀌었으나 여전히 濰縣 현성 내에 있었던 셈이다.



〈그림 6〉 濰縣 孔相祠(공융의 사당)의 옛 사진

그렇다면 조선사신들이 “孔融祠”의 위치를 잘못 기재한 것일까. 그러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다. 우선 조선사신들의 (6), (7)과 (9), (10)의 기록 모두에는 濰縣 동쪽에 “文學甘棠”의 牌門(櫺門 혹은 牌坊)이 있다고 했지 직접 사당을 보았다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 아마도 유현과 관련된 유명한 인물인 孔融의 사적을 기리고 마을의 명망을 알리기 위하여 유현의 입구에 “文學甘棠”이라는 폐방이 세워져 있었고, 조선사신들은 그 폐방을 보고 이정표를 겸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또 공융을 기념하는 시를 남긴 것일 것이다.

29) “在縣治東，宋政和四年建。國朝成化間，知縣宋兪重修。”《(萬曆)萊州府志》卷四《祀典》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30) “孔北海祠二：一在關公廟前□□邑人丁汝奇創建；一在北海道司西鄰，有司春秋至祭。”(淸) 王珍，陳調元等 纂修，《(康熙)濰縣志》卷二《壇廟》，淸 康熙 十一年刊本。

결론적으로 말하면, 조선사신이 기록한 “孔文學舊治”, “孔融廟”와 “文學甘棠” 櫺門은 모두 濰縣에서 동쪽으로 10리 떨어진 급체포인 趙疇鋪에 있었으며, 지금의 濰坊市 奎文區 北海路街道 趙疇社區이다.

4.2 東丹河橋 (虞河橋/漁河橋/濰河橋), 東丹河 (虞河/濰河/囊沙上流處/淮水/東渡河)

濰縣城과 성의 동쪽에 있는 寒亭鋪 사이에는 모두 세 줄기의 하천이 흐르는데, 한정포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차례로 나열하면 寒泥水(寒水, 지금의 泥河), 東丹河(東于河, 지금의 虞河), 그리고 白浪河이다. 寒泥水와 寒亭鋪의 명칭은 그 유래가 분명하여 사람들이 헛갈리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濰縣城의 동쪽에 있는 東丹河(東于河)와 濰縣城의 서쪽에 있는 西丹河(小于河)는 글자가 비슷하여 쉽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았다.

(2)에서 李民宥 일행은 昌邑縣에서 출발하여 서쪽으로 이동했는데 정오에 寒亭鋪에 도착하여 선 후, “濰縣城에서 동쪽으로 몇 리 떨어진 濰河” 위의 “漁河橋”를 건넜다. “漁河橋”는 “虞河橋”를 가리킨다. 李民宥가 기록한 “濰河”는 정확하게 말하면 濰縣 동북 5리에 있는 虞河이다.

李德洞, 吳翻, 洪翼漢 3인은 모두 明 天啓 4년(1624) 謝恩兼奏請使臣團의 정사, 부사, 서장관으로 사행기간 중 항상 동행한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노선을 경유하였다. 洪翼漢은 (6)에서 “白狼河”와 “大濰河”를 서로 다른 두 개의 강으로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白狼河”는 바로 “白浪河”이고, “大濰河”는 개인적인 감회 때문에 “大”자를 추가한 것 같다. 아무튼 洪翼漢이 언급한 “大濰河”는 바로 濰縣의 동쪽에 있는 東丹河(東于河, 지금의 虞河)를 가리킨다. 마찬가지로 (6)과 (7)의 북경행 기록에서 언급한 “濰河橋” 역시도 실제로는 東丹河 위에 놓인 “東于河橋”³¹⁾이다. “東于河橋”는 지금의 濰坊市 福壽東街에 있는 虞河를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다.

그 밖에 주목해 볼 것은 李民宥가 (3)의 귀국행 여정에서 “東渡河”를 기록한 것이다. 이민성은 昌樂縣城에서 출발하여 동쪽으로 여정에 올라 濰縣城 北關에서 아침을 해먹고 東渡河를 건넜고 孔文學舊治(濰縣 동쪽 10리), 晏平仲故里(濰縣 동쪽 20리)를 차례로 지났다. 이민성이 언급한 “東渡河”는 바로 “東丹河”로서, 역시 지금의 虞河이다.

《寒亭區地名志》의 기록에 따르면, 지금의 虞河는 옛날 漑水라고 불렀는데 昌樂縣 漑源山(지금의 安丘縣 靈山)에서 발원했기 때문이다. 漢代에는 利漁河, 元代에는 東度河라 불리다가 지금은 虞河로 불린다. 우하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데 濰坊市 坊子區, 奎文區, 濰城區를 지나 郭家官莊鄉 雙廟(村)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 里疇鄉, 固堤鎮을 지나 다시 동북으로 방

31) “東于河橋”는 淸 康熙 연간의 명칭이다. 淸 乾隆 연간에는 “東丹河橋”로 불렸으니, “東丹河橋는 縣의 동쪽 5리에 있으며 속칭 虞河橋라고도 한다(東丹河橋, 在縣東五里, 俗稱虞河橋.)”는 기록이 전한다. 《(乾隆)濰縣志》卷之二《橋樑》, 淸 乾隆 二十五年刊本版.

향을 꺾어 濰坊市 寒亭區와 昌邑市의 경계를 이루며 북으로 渤海로 유입된다. 전체 길이는 75km이고 웨이팡시 境內를 지나는 구간은 45km이고 사계절 강물이 흐르는 常年河이다.

그런데 한 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의 조선사신들은 왜 東丹河를 濰水로 잘못 기록한 것일까. 金德承의 (4)의 기록을 보면 그 단서가 보인다. 김덕승은 “文學甘棠 牌坊, 곧 濰縣 東十里鋪(趙疇鋪)의 서측에 淮河가 있으며 이 강은 바로 昌邑縣의 濰水인데, 역시 濰縣으로도 흘러간다.”고 기록했다. 그러니까 조선사신들은 대부분 東丹河가 昌邑縣 濰水の 일부분이라고 착각하고서 東丹河를 濰水나 淮水로, 東丹河橋를 濰河橋로 잘못 기록했던 것이다. 또한 東丹河는 虞河라고도 불렸으므로 발음이 비슷한 濰河로 잘못 기록하기 쉬웠을 것이다.

1624년 李德洞, 李民宥 일행의 부사였던 吳翻은 <淮河를 건너며(渡淮河)>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역시 東丹河를 건너면서 그곳이 淮河, 즉 濰水라고 오해하고 지었을 가능성이 크다.

濰水の 맑은 물 흐르고 차가운 연기 피어오르는 저녁 풍경에 발걸음 느려지고
禹임금이 천하를 나누어 다스린 드넓은 땅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네.
누가 알았겠는가! 우임금이 동쪽 방향으로 물길을 내고 홍수를 다스릴 때
삼한 땅(조선)에서 성현의 도 널리 퍼져 크게 교화될 것임을!

<渡淮河>

碧水寒煙暮景遲, 茫茫禹跡入深思。誰知開鑿東流日, 却是三韓漸化時。

앞서 살펴보았듯이 “濰河”는 원래 昌邑縣 境內에 있는 濰水로서 속칭 淮水라고 불리는 강이다. 그러나 濰縣으로 흘러들러 가므로 “濰河”라고 불린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조선사신 吳翻도 실제로는 濰縣 東丹河를 건너면서, 東丹河를 濰水로 착각하고서 “淮水を 건너다”는 뜻의 <渡淮河>라는 시를 지은 것이다. 오숙은 유수를 건너면서 창읍현의 유수가 유현으로 흘러들어 그 물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여기고, 그 옛날 홍수에 쓸려버린 중국 땅에 물길을 내고 지역을 나누어 치세의 기틀을 다졌던 우임금의 치적을 떠올렸다. 그리고 중국이 이와 같이 물길을 내고 있을 때 삼한의 땅은 문명이 발달하고 교화되고 있었다는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그림 7> 濰坊市(明末 濰縣) 奎文區를 흐르는 현재의 虞河(명청시기 지방지에는 東于河 혹은 東丹河라고 기록되어 있고 속칭 虞河로도 불림)

4.3 “北通渤海, 南溯穆陵” 欄門 (通濟橋/白浪橋), 白浪河 (白狼河/古白浪河)

위의 인용문 (9)과 (10)에서 각각 申悅道와 鄭斗源이 언급한 “古白浪河” 欄門은 모두 白浪河를 가리킨다. 한편, (7)의 문장에서 洪翼漢은 白狼河로 기록하고 있으니 이는 白浪河의 別名이다. 조선사신들이 언급한 白浪河(白狼河)는 지금의 濰坊市 白浪河이다. 《(乾隆)濰縣志》에 의하면, “白狼河는 濰縣 東門 밖에 있는데 雷鼓山에서 발원하여 북으로 80리를 흘러 別畫湖에 합류하여 발해로 흘러든다. 唐 北海令 竇琰이 이 강의 물을 끌어들이어 농지에 물을 대었다고 한다. 《舊志》에 白狼河는 두 곳에서 발원한다고 했는데, 한 곳은 雷鼓山에서 시작한다. 《隋志》에서는 雷鼓山을 白狼山이라 기록하고 있으므로 白狼山에서 강의 이름을 취한 것이다. 다른 한 곳은 縣의 남쪽 小王莊에서 발원한다고 했는데 평지에서 샘이 솟아 바퀴모양을 이루며 흘러 물줄기를 이루고 큰 물줄기로 합쳐져 縣城 東門을 지나 곧바로 北海(즉 渤海)로 흘러든다.”³²⁾

(9)와 (10)에서 언급한 폐방의 “北通渤海”라는 글자는 白浪河가 濰縣 東城門 밖을 지나 발해로 흘러간다는 뜻이고 “南溯穆陵”이라는 글자는 白浪河를 남으로 거슬러 가면 穆陵關의 밖에 닿는다는 뜻이다. 穆陵은 穆陵關을 가리킨다. 穆陵關은 지금의 山東省 臨朐縣(임구현) 동남쪽에 있는 大峴山(대현산)에 있는데 지세가 험하여 春秋시기 齊나라 남쪽 국경의 중요 군사요충지였다. 그러나 현재의 白浪河의 물줄기 흐름은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도 穆陵關에 가 닿지 못한다.

(9)와 (10)에서 모두 “北通渤海, 南溯穆陵” 牌坊을 언급하고 있으니 이는 申悅道와 鄭斗源이 濰縣城 부근에 올 때까지 지나간 노선이 일치함을 뜻한다. (10)에서 鄭斗源은 濰縣城에 도착한 후 어디에 묵었는지 기록을 남기지 않았지만 (9)에서 申悅道가 白浪橋를 건넌 후 濰縣 東館駟에 묵었다고 했으므로 정두원도 틀림없이 濰縣 東館駟에 묵었을 것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7), (9), (10)에서 모두 白浪河를 언급했으나 밤에 유숙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사신들이 白浪河를 건넌 구체적인 지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9)에서는 “白浪橋”라는 石橋가 하나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석교는 濰縣城 東門(朝陽門) 밖에 있던 通濟橋이다. “通濟橋는 東門 밖에 있는데 金나라 大定 6년 本敬 스님이 건축했으며 一名 白浪橋라고도 부른다.”³³⁾ 通濟橋는 주위 풍경이 아름다웠기 때문에 清代에 濰縣 八景 중의 하나로 꼽혔으며, 《(乾隆)濰縣志》에 의하면, “石橋簾玉, 즉 줄줄줄 흐르는 강물이 석교에 찰랑찰랑 부딪쳐 쟁그렁 쟁그렁 옥노리개처럼 맑은 소리를 낸다는 美稱으로 널리 알려졌다.”

32) “白狼河, 在(濰)縣東門外, 源出雷鼓山, 北流八十裡, 由別畫湖入海. 唐北海令竇琰引以溉田. 《舊志》: 白狼有二源: 一出雷鼓山. 《隋志》作白狼山, 卽雷鼓山, 故河以白狼名. 一出縣南小王莊, 平地湧泉, 如輪上源, 合此始大經縣城東門外, 直入北海.” 《(乾隆)濰縣志》卷之二《山川》, 清 乾隆 二十五年刊本版.

33) “通濟橋在東門外, 金大定六年僧本敬建, 一名白浪橋.” 通濟橋因風景優美, 爲清代濰縣八景之一的“石橋簾玉”. “水聲潺潺, 漱激於石, 其聲琮琤, 如環珮” 《(乾隆)濰縣志》卷之一《山川》, 清 乾隆 二十五年刊本版.



〈그림 8〉 지금의 白浪河에 놓여 있는 古今橋 (이 자리가 바로 조선사신 鄭斗源과 申悅道가 건넜다고 언급한 명말 白浪橋가 있던 자리이다. 백랑교는 명청시기의 속칭이며 중국 지방지 상의 정식 명칭은 通濟橋이다.)

白浪橋는 지금의 濰坊市 奎文區의 상징적인 다리인 亞星橋 남측의 古今橋 부근에 있다.

그런데 (1)의 기록에 따르면 趙澱 일행은 白浪橋를 건너서 濰縣城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또 다른 水橋 하나를 건너서 濰縣 北關 客店에 묵었다고 했다. 조즙 일행이 건넌 다리는 중국 지방지에 기록된 위치에 근거해서 유추해보면 臥龍橋일 것으로 추측된다.³⁴⁾ “臥龍橋는 石橋로서 北門 밖 2리 떨어진 곳의 白浪河에 놓여져 있었다. 민간에서 이르기를 宋나라 태조 조광윤이 황위에 등극하기 전 민간에서 살 때 여기에 왔다가 목욕을 한 곳이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³⁵⁾ 옛날 와룡교 자리에는 지금의 白浪河를 가로지르며 福壽街를 잇는 다리(지금의 웨이팡시 福壽街는 白浪河를 경계로 동쪽은 福壽東街, 서쪽은 福壽西街로 나뉘)가 놓여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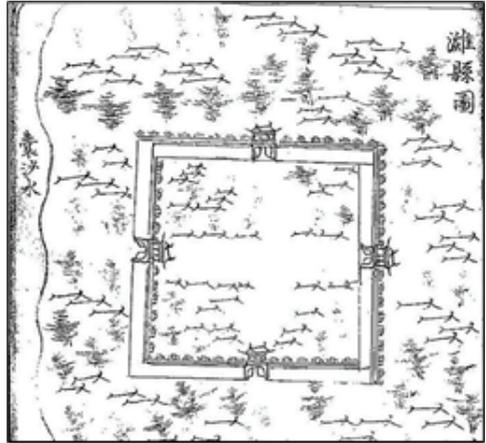
4.4 濰縣城

이후 조선사신들은 濰縣城에 도착했고 유현성에 들어가기 전에 대부분 東關에서 유숙하였다. 濰縣城은 대체로 정사각형 모양을 이루고 있었고 동, 서, 남, 북에 4개의 성문이 있었다. 동문을 朝陽門, 서문을 迎恩門, 남문을 安定門, 북문을 望海門이라 했으며 西門과 南門에는 翁城이 있었다. 道光 28년(1848)에重修했을 때 성 전체 둘레가 약 4,118m, 성벽의 높이는 평균 10.8m, 성벽의 두께는 9m에 달했고, 4개의 성문 위에는 모두 망루와 炮臺(포대)가 있어 외관이 높고 거대하여 실로 장관을 이루었다 한다.

34) 혹은 白浪河는 여름에 강물이 많이 흐르는 季節性 河流였으므로 趙澱 일행이 강을 건널 때는 마침 여름철이라 石橋가 물에 잠겨서 현지인들이 나룻배를 연결하여 舟橋를 만들어 석교를 대신했을 수도 있기에 趙澱이 기록한 “水橋”는 舟橋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다.

35) “臥龍橋, 卽石橋在北門外二里許, 跨白浪河. 俗傳宋藝祖微時東遊浴於下, 因名.”《(萬曆)萊州府志》明 萬曆三十二年刻本版.

《(乾隆)濰縣志》에 따르면 “유현의 土城은 漢나라 때 처음 축성되었고 明 正德 7년 (1512)에 萊州府 推官 劉信이 重修하였다. 崇禎 12년(1639)에 邑令 邢國璽(형국쇄)가 돌로 토성을 둘러 보강하려 했는데 사대부와 백성들이 각자 해야 할 일을 스스로 알아서 했으므로 부역을 나누어 맡기고 독촉할 필요가 없었다. 백성들이 정한 일정을 쫓아 과연 수개월만에 준공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清 乾隆 13년(1748) 知縣 鄭燮(정섭)이 스스로 자금을 출연하고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크게 중수했는데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지 않고도 1800여 尺에 이르는 성벽에 성가퀴를 쌓고 성루를 새로 세워 안과 밖이 모두 완정해졌다.”³⁶⁾



〈그림 9〉 鄭斗源《朝天記地圖》〈濰縣圖〉

1948년 국공내전이 끝날 때쯤 유현의 옛 성벽은 크게 손상을 입어 많은 곳이 허물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된 후, 유현은 濰坊市로 도시화가 진행되어 옛 성벽은 거의 사라지게 되었지만 지금까지도 濰坊市 濰城區 向陽路和 北馬道街의 交叉路 부근에 옛 濰縣城 北城牆(북성장- 북쪽 성벽) 유적이 일부분 남아 있어 옛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림 10〉 濰縣城 北門(望海門) 부근(지금의 北門大街와 北馬道街의 交叉路의 동측)의 성벽 유적

현대 濰坊史志를 편찬한 향토사학자 孫福建 선생과 孫建松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옛 濰縣城의 동, 서, 남, 북 4곳의 성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현재의 지역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곧, 東門인 朝陽門은 지금

36) “土城創於漢，明 正德 七年 (1512)萊州府推官劉信重修，崇禎十二年(1639)邑令邢國璽以石甃之，紳民各認丈尺，不用衙役審催，聽從民便，不數月而告竣。後屢次小修。”“清 乾隆 十三年(1748)知縣鄭燮捐資倡衆大修，不假胥役，修城1800餘尺，垛齒械樓，表裡完整。”《(民國)濰縣志》에 의하면, 유현 현성은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보수와 증축을 거쳤다. “嘉慶 元年(1796)知縣 莊述祖가 한 구간의 성벽을 새로이 修築했다. 道光 25년(1845) 知縣 何鎔(하용)이 백성을 모아 대대적으로 수리를 했으며, 道光 28년에 다시 重修했다. 그후 光緒 6년(1880), 8년(1882), 14년(1888), 18년(1892), 20년(1894), 21년(1895) 등 6차례 소규모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嘉慶 元年(1796年)知縣莊述祖修築一段，道光 二十五年(1845年)知縣何鎔倡衆大修，道光 二十八年又重修，光緒 六年(1880年)、八年(1882 年)、十四年(1888年)、十八年(1892年)、二十年(1894 年)、二十一年(1895年)六次小修。) ”

의 亞星橋 서쪽 끝단인 和平路和 東風西街의 交叉路에, 西門인 迎恩門은 東風西街와 月河路의 交叉路에서 약간 북쪽에, 南門인 安定門은 勝利西街와 向陽路의 交叉路에, 北門인 望海門은 北門大街와 北馬道街의 交叉路에 있었다.

끝으로 李民宥이 漣縣으로 가는 사행노정 가운데 지은 〈유현을 지나가는 도중에 감회를 읊다(漣縣途中詠懷)〉라는 시를 살펴보면, 조선사신들이 사행 여정 가운데 느꼈던 상념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아침이 밝아오니 못별들은 모두 사라졌는데
 동쪽 하늘의 새벽(금성)만이 홀로 밝게 반짝거리네.
 가야할 길과 건너야 할 강, 아직 남은 여정이 길기도 하구나!
 여정을 절반도 마치지 못했으니 나그네의 마음 울적하기만 하네!
 또 다시 큰 강 우리 앞에 나타나 물결 출렁이는데
 어서 빨리 건너고 싶어도 배도 없고 다리도 없구나!
 문득 만리 밖 고향 생각이 나서 고개 들고 아득하게 펼쳐진 길을 바라보며
 신선이 타는 황학을 얻어 타고 바람을 타고 고향에 돌아가는 상상에 젖어보네.

〈漣縣途中詠懷〉

早起衆星滅, 明星獨煌煌。川陸日悠哉, 客心悲未央。
 洪河動我前, 欲濟無舟梁。所思在萬里, 矯首路渺茫。
 焉得騎黃鶴, 凌風歸故鄉。

李民宥은 촉박한 사행 여정 때문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별빛 아래 사행길을 나서서 길 위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조선사신들의 고단한 모습을 묘사하였다. 그렇게 부지런히 사행길을 재촉하여 가지만 아직 여정의 반도 미치지 못하였고 여전히 북경까지의 길은 멀고도 멀다 하니 절로 울적한 마음이 들게 된다. 게다가 눈 앞에는 커다란 물결이 출렁이는 강이 나타났다는데 배도 없고 다리도 없으니 먼 길을 앞두고 조급한 마음은 더욱 심해졌다. 마지막에 멀고 긴 여정을 한걸음씩 밟아가노라니 절로 한탄이 나오고 문득 고향 생각이 더욱 간절해져서, 만약 신선이 탄다는 학이라도 날아온다면 얻어타고 단숨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니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달콤한 상상에 빠지게 된다고 솔직한 심정을 표현하였다.

북경으로 향하는 조선사신들은 조선을 대표하는 외교사절로서 강한 책임감을 지닌 뛰어난 인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멀고 긴 사행길의 고달픈 여정과 피로감, 그리고 나그네길의 향수는 이렇게 가끔씩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마음을 진하게 느끼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민성이 漣縣을 지나면서 솔직하고 담백하게 자신의 심정을 담아낸 시 속에는 당시 조선사신들의 사행 여정의 일정과 그들이 느꼈을 상념이 오롯이 나타나 있다.

5. 나오는 말

본고는 명청교체기 해로사행노선을 따라 登州에 상륙하여 북경으로 향했던 조선사신들이 거쳐간 사행 경유지 가운데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부터 濰縣城에 이르는 구간의 對明使行路程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연행 기록, 지방지 등의 문헌 연구와 현지의 지역 실사, 인터뷰 등을 통하여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부터 濰縣城까지 이르는 구간의 대명 해로사행노선의 대체적인 경유지를 파악하고 현재의 지명과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그 결과 山東 萊州府 昌邑縣城부터 濰縣城까지 이르는 구간의 명대의 지명은 현재의 昌邑市 都昌街道, 濰坊市 寒亭區, 濰坊市 奎文區 지역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본고에서는 세 구간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明代 당시 지방지 문헌, 조선사신의 기록에 나타난 명칭에 의거하여 조선 사신들이 昌邑縣城에서 濰縣縣城까지 거쳐간 경유지를 명말 당시의 지명으로 동에서 서로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新營堡 - ②北逢鋪 - ③王祿店(王奴店/王耨鋪) - ④“渤海襟喉”櫺門(王白鋪) - ⑤四十里鋪(牛埠鋪) - ⑥“營丘舊封”櫺門(王彥方故里/寒亭/漢亭店/寒亭古驛亭/寒亭古驛) - ⑦“古亭寒水”櫺門(縣泥河/泥河) - ⑧濰縣二十里鋪(平仲古里/晏平仲故里/朱毛鋪) - ⑨十里鋪(孔文舉舊治/“文舉甘棠”櫺門/趙疇鋪)- ⑩東丹河橋(虞河橋/漁河橋/濰河橋) - ⑪東丹河(虞河/濰河/囊沙上流處/淮水/東渡河)- ⑫“北通渤海 南遡穆陵”櫺門(通濟橋/白浪橋) - ⑬白浪河(白狼河/古白浪河) - [臥龍橋](趙澱이 언급한 白浪河에 있던 水橋) - ⑭濰縣城 등.

문헌고증과 현장답사, 현지 전문가와 현지인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선사신의 경유지의 명대 말기 지명에 대응하는 현재 지명을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昌邑市 都昌街道 辛置一村(辛置二村, 辛置三村) - ②昌邑市 都昌街道 南逢村(王家北逢村, 劉家北逢村, 高家北逢村, 徐家北逢村) - ③昌邑市 都昌街道 王耨村 - ④濰坊市 寒亭區 朱里街道 王伯村 - (濰坊市 寒亭區 朱里街道 官橋村) - ⑤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牛埠村 - (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毛家埠村) - ⑥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寒亭一村 - ⑦濰坊市 寒亭區 寒亭街道 내의 泥河 구간 - ⑧濰坊市 寒亭區 開元街道 胡家朱茂村(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玄家朱茂社區, 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杜家朱茂社區, 濰坊市 高新技術產業開發區 新城街道 李家朱茂社區) - ⑨濰坊市 奎文區 北海路街道 趙疇社區 - ⑩濰坊市 福壽東街를 잇는 虞河 위의 다리 - ⑪濰坊市 奎文區 내의 虞河 구간 - ⑫濰坊市 奎文區 亞星橋 南側의 古今橋 - ⑬濰坊市 奎文區 내의 白浪河 구간 - [福壽街를 잇는 白浪河 위의 무명교](趙澱이 언급한 白浪河에 있던 다리, 福壽街는 白浪河를 경계로 하여 동쪽으로는 福壽東街, 서쪽으로는 福壽西街로 나누어짐) - ⑭濰坊市 奎文區와 濰城區 일대(東으로 和平路和 東風西街의 交叉路를 지나는 세로축, 西로 風西街과 月河路의 교차로 부근을 지나는 세로축, 北으로 北

【 參 考 文 獻 】

- (朝鮮) 金德承, 《天槎大觀》
(朝鮮) 金尙憲, 《朝天錄》
(朝鮮) 安瓚, 《駕海朝天錄》
(朝鮮) 申悅道, 《朝天時間見事件啓》
(朝鮮) 吳允謙, 《揪灘東槎朝天日錄》
(朝鮮) 尹暄, 《白沙公航海路程日記》
(朝鮮) 李德澗, 《朝天錄(一云航海錄)》
(朝鮮) 李民宥, 《癸亥朝天錄》
(朝鮮) 全湜, 《沙西航海朝天日錄》
(朝鮮) 鄭斗源, 《朝天記地圖》
(朝鮮) 趙澂, 《燕行錄(一云朝天錄)》
(朝鮮) 洪翼漢, 《花浦朝天航海錄》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서울: 사회평론, 2012
조규익, 《연행 길, 고통의 길, 그러나 깨달음의 길-국문 사행록의 미학》, 서울: 역락, 2004
조준 저, 최강현 역, 《계해수로조천록》, 서울: 신성출판사, 2000
김지현, 〈17세기 초 대명 해로 사행록 서술의 양상〉, 《한국문학과 예술》 15, 2015
김태준, 〈중국 내 연행노정고〉, 《동양학》 35권, 2004
신춘호, 〈명청교체기 해로사행 노정의 인문정보 일고-《朝天記地圖》의 산동지역(등주-덕주) 인문지리 현황을 중심으로〉, 《한국고지도연구》 8(1), 2016
이성형, 〈《천사대관》과 《대명일통지》 수용양상 고찰 - 산동 육로 구간을 중심으로〉, 《한문 고전연구》 33집, 2016
정영문, 〈17세기 사행록의 연구현황과 나아갈 방향-명·청 교체기의 사행을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예술》 17집, 2015
최소자, 〈명청과 조선, 조선과 명청 관계사 연구현황과 과제 - 수교20주년에 즈음하여〉, 《명청사연구》 38집, 2012
(明) 李賢等, 《大明一統志》, 三秦出版社, 1990
(清) 穆彰阿等 纂修, 《(嘉慶)大清一統志》, 四部叢刊續編景舊鈔本
(清) 岳浚等, 《(雍正)山東通志》, 四庫全書版
(明) 《大明會典》, 明 萬曆 內府刻本
(明) 嘉靖《山東通志》, 明嘉靖刻本
(清) 康熙《平度州志》, 康熙五年刊行本
(清) 道光《重修平度州志》, 清道光二十九年刊刻本
(清) 光緒《平度志要》, 清光緒十九年手抄本

- (明) 萬曆《萊州府志》，明 萬曆 三十二年刻本
(清) 乾隆《萊州府志》，清 乾隆 五年刻本
(清) 康熙《昌邑縣志》，清 康熙 十一年刊印本
(清) 許全臨 等 纂修，《(康熙)昌邑縣志》，清 康熙 十一年(1672)，中國國家圖書館藏本版
(清) 王珍，陳調元 等 纂修，《(康熙)濰縣志》，清 康熙 十一年(1672)刊本版
(民國)《平度縣續志》，民國 二十五年鉛印本
山東省平度縣地方史志編纂委員會 編纂《平度縣志》1987年版
山東省萊州市史志編纂辦公室，《萊州市志》，齊南：齊魯書社，1996
尹洪林，《萊州歷史大觀》，黃河數字出版社，2011
昌邑市辛置誌編纂委員會，《辛置志》，齊南：齊魯書社，1998
平度市民政局 編《平度市地名志》，齊南：齊魯書社，2017年版
韓寓群，《山東文獻集成(第二輯)》第二十五冊，齊南：山東大學出版社，2007
寒亭區地名志編纂委員會，《寒亭區地名志》，齊南：齊魯書社，1989

인터뷰 대상 및 장소, 시간

- 昌邑市地方史志辦公室負責編寫《昌邑年鑒》的張述智 (男, 68歲)
昌邑市方志館, 2019.01.19 10:20-13:40
- 昌邑市 都昌街道 王家北逢村 村民 王郭緒 (男, 53歲)
昌邑市都昌街道王家北逢村, 2019.01.18. 14 : 35-14:40
- 昌邑市 都昌街道 王耨村 村民 張新偉 (男, 38歲)
昌邑市都昌街道王耨村, 2019.01.17 09:35-09:45
- 濰坊市 寒亭區 王伯村 村民 王素梅 (女, 41歲)
濰坊市寒亭區王伯村, 2019.01.17 09:10-09:20
- 濰坊市 寒亭區 牛埠村 村民 王建忠 (男, 55歲)
濰坊市寒亭區牛埠村, 2019.01.17 08:30-09:05
- 濰坊市寒亭區文物管理保護所 所長 崔永勝
濰坊市寒亭區文物管理保護所, 2018.11.09 10:55-11:25
- 濰坊市傳統歷史文化研究學者 孫福建、孫建松/濰坊市寒亭區文物管理 保護所所長 崔永勝
濰坊市寒亭區文物管理保護所, 2019.01.16 14:15-16:40

【 Abstract 】

A Human Geographic Study on the Shipping Route of the Joseon(朝鮮) Envoys for Ming(明) Dynasty from the Castle of Changyi County(昌邑縣城) to the Castle of Wei County(濰縣城) of Laizhou(萊州) in Shandong(山東)

Wang, Ke* · Han, Jongjin** · Dang, Yunhui***

This study, from the diachronic perspective, based on the field surveys and some interviews, verifies the present geographic names of the places which were passed by the Joseon(朝鮮) envoys, especially around the castle of Changyi County(昌邑縣城) to the castle of Wei County(濰縣城) of Laizhou(萊州府) in Ming(明) Dynasty. It will help to confirm and reconstruct the shipping routes of the Joseon(朝鮮) envoys in Laizhou(萊州府) during the alternation of Ming(明) and Qing(清) Dynast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and field surveys, the names of the places passed by the Joseon envoys from the castle of Changyi County(昌邑縣城) to the castle of Wei County(濰縣城) in Laizhou(萊州府) are reconstructed as follows: ① Xinying Station(新營堡) - ② Beibang Station(北逢鋪) - ③ Wanglu Station(王祿店/王奴店/王耨鋪) - ④ “Bohai jinhou” pole(“渤海襟喉”欄門/王白鋪) - ⑤ Forty distance Station(四十里鋪/牛埠鋪) - ⑥ Wang, Yanfang Village(“營丘舊封”欄門/王彥方故里/寒亭/漢亭店/寒亭古驛亭/寒亭古驛) - ⑦ Hanzhu River(“古亭寒水”欄門/寒泥河/浞河)- ⑧ An, Pingzhong Village(平仲古里/晏平仲故里/濰縣二十里鋪/朱毛鋪) - ⑨ Ten distance Station(十里鋪/孔文舉舊治/“文舉甘棠”欄門/趙疇鋪) - ⑩ East Dan River Bridge(東丹河橋/虞河橋/漁河橋/濰河橋) - ⑪ East Dan River(東丹河/虞河/濰河/囊沙上流處/淮水/東渡河)- ⑫ Bailang Bridge(“北通渤海 南遡穆陵” 欄門/通濟橋/白浪橋) - ⑬ Bailang River(白浪河/白狼河/古白浪河) - ⑭ the castle of Wei County(濰縣城)

Keyword : Joseon(朝鮮) envoys, field survey, the castle of Changyi County(昌邑縣), the castle of Wei County(濰縣城), the prefecture of Laizhou(萊州府), city of Changyi(昌邑市), city of Weifang(濰坊市)

* Lead author. Lecturer, Korean Language Dep. Weifang Univ. China (wgc5858@naver.com)

** Co-author. Associate Professor, Korean Language Dep. Weifang Univ. China (hans@snu.ac.kr)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Dep. Konkuk Univ. Korea (dyh4335@konkuk.ac.kr)

투 고 일 : 2021. 01. 22.

심 사 일 : 2021. 01. 25. ~ 02. 03.

게재확정일 : 2021. 02. 18.